경제혁신
3개년 계획

Weekly 공감

No.292
korea.kr/gonggam
2015.02.02




중점기획 정부·기업 문화예술 협업 지원

# 예술꽃씨앗학교·새싹학교

2015 부처 업무보고 Ⅲ

## 국민행복 '미래로 희망으로'

## 정부 공모·보조사업 ③

스캔하면 공감 블로그를 만납니다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땐 365일 24시간 보건복지 콜센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복지포털

# 복지로가 새로워졌습니다

## 복지신청은 복지로, 부정신고도 복지로




찾 고 1. 360종의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검색이 가능합니다.

살피고 2. 생활이 어려운 본인이나 이웃에 대한 사연을 신청하면 도움을 드립니다.

줄이고 3. 보건·복지 부정수급,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복지신청은 복지로

### 복지혜택이 필요할 때 찾아주세요.

-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복지지원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 유아학비, 기초연금 등 12개 복지사업

### 도움이 필요할 때 사연을 남겨주세요.

- 직접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웃이 사연을 남길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사연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연결됩니다.
- 신청한 사연의 진행상황은 홈페이지나 핸드폰 문자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15. 2월까지는 어려운 이웃 집중 발굴 · 지원 기간입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신청하세요.

## 부정신고도 복지로

### 부정하게 사용되는 복지재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신고사실이나 내용은 비밀이 유지되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정이 발견되면 비용환수, 행정처분,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어린이집,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 신고포상

부정수급 신고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044-202-2092)

### 주요 부정수급 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 지원을 받기 위해 본인 및 가족의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어린이집**
- 어린이집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육료 또는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 국적상실, 이민출국, 주민등록 말소 등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 의료기관이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료횟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실제 구입한것보다 많이 결제한 후 보조금을 횡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hwis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Korea Health and Welfare Information Service

# 고맙소~ 작은영화관



**김선태**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전국에서 1200만 명이 넘게 본 영화 〈국제시장〉. 대도시에서는 슬슬 개봉관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동네(전북 장수군) '작은영화관' 한누리시네마에서는 여전히 어르신들의 열화와 같은 반응 속에 '절찬 상영 중'입니다. 한누리시네마를 찾아 〈국제시장〉을 보신 한 어르신은 "이 동네에 시집 와 30년 만에 영화 첨 봤다"고 감격해하셨습니다. 저희가 만든 영화도 아닌데, 고작 작은영화관 운영자들인데, "고맙다"는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은 2010년 한누리시네마가 문을 연 이후 역대 관람률 1위 영화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부부의 진솔한 사랑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도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 영화입니다. 물론 작은영화관이라고 해서 복고풍 영화만 상영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와 청년을 위한 〈트랜스포머〉와 3D영화 등 최신 개봉작도 상영합니다.

작은영화관이란 거주 인구가 너무 적어 민간 영화관이 들어서지 않는 문화 소외지역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해 만든 소규모 영화관입니다. 2010년 10월 한누리시네마가 전국 1호로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 9개의 작은영화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저기 작은영화관이 생겨나며 운영 노하우 전수에 바쁜 요즘, 한누리시네마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장수군에는 대중교통이 뜸하게 운행되는 교통 소외지역이 많은데, 이런 지역 어르신들이 "버스 쪼까 보내주믄 안 되겠능가?" 하고 전화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대형식당에서 단체손님용 승합차를 운행하니 "극장에도 버스가 있겄제" 하시는 겁니다.

버스가 없다고 거절하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곤혹스러웠습니다. 군청, 도청에 문의해도 작은영화관만 버스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작된 현대자동차의 사회 기여 프로그램 '카 셰어링'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에 어르신들의 사연을 적어 신청했는데,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4개 마을이 서비스를 받게 됐습니다. 작은영화관에서 가장 멀리 있는 마을로 카 셰어링 버스가 들어가 어르신들을 태우고 와서 영화 보고 돌아가기까지 총 3시간이 걸렸습니다. 상영 시간보다 오간 시간이 더 길었음에도 어르신들은 그저 기쁘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에게 행복한 추억 하나씩을 간직하게 만들어준 카 셰어링.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앞으로 고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려 합니다.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은 2월 5일 인천 강화군에서 문을 여는 작은영화관 운영도 맡게 됐습니다. 이곳 작은영화관 개설에도 문체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민은행이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한 편의 영화를 통해 웃음과 감동을 맛보고 두고두고 이야기꽃을 피울 거리를 한 아름 안고 돌아가는 문화 소외지역을 위한 작은영화관. 문체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함께 기업의 크고 작은 기여가 있을 때 영화의 감동은 곱절이 됩니다. G

Weekly 공감

# CONTENTS

2015. 2. 2 No.292 통권 393 korea.kr/gonggam



**표지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이 1월 27일 디자인, 기술, 문화를 접목한 창조경제의 현장인 광주 대인시장을 방문했다. 상권이 쇠락하다 예술시장으로 거듭나 전통시장의 혁신 모델로 각광받는 곳이다. 공예체험을 하는 카페에 들어간 박 대통령은 풍경종을 구매한 뒤 '대인시장 창조경제'라고 직접 쓰고 치켜들었다. 종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창조경제'도 그렇게 널리 전파되길 기대해본다.


**특별기획 2015 부처 업무보고 Ⅲ**

24 **교육부·고용노동부**
국민체감 행복지수 높여
희망 대한민국 문 함께 연다

2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국가 브랜드 개발
한류 문화영토 확대

32 **보건복지부**
소득·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일상에서 복지혜택 확대

36 **환경부**
안전한 환경, 미래가치 창출
미세먼지 경보제 확대

38 **여성가족부**
일·가정 양립 지원
양성 동반성장 가속화

40 **대통령 국정 메시지**
경제 활성화 '골든 타임'
미래로, 희망으로 나아갑시다






01 **이 주의 공감**

04 **독자마당**

06 **공감 사진관**
새 학기 원룸 구하는 똑똑한 방법

08 **이 주의 키워드**

10 **화보**
함께 즐겨요, 문화가 있는 날










**13** **중점기획 | 문화꽃 피우는 메세나 기업들**
**14** 자칫 시들어버릴 예술꽃
물을 주고 빛을 줍시다

**18** 늘어가는 작은영화관
풍성해지는 '시네마 천국'

**20** 문화와 함께 한 옥타브 성장하는 기업

**〈위클리 공감〉 추천 겨울 여행지 III | 낭만의 겨울 바다**
**44** **속초 영금정해안**
거센 파도는 밀려오고
세상 시름은 쓸려가고

**46** **경주 봉길해변**
언제나 감동이구나!
동해 수호신 대왕암

**정책 & 인터뷰**
**48** **빛나다 대한민국 공무원①**
세상을 밝히는 '남다른 사명감'

**연속기획 | 정부 공모·보조사업 정보**
**50** 지역의 인문학 갈증 풀어요
**51**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52** **정책 현장**
불법 꼼짝 마! 저작권 지킴이 떴다

**54** **정책 현안**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56** **국민 편의**
당황하지 않고~ 범죄 112 · 재난 119 · 민원 110!

**문화 & 예술**
**58** **문화 현장**
저녁 때 돌아가 당신이 쉴 집이란?

**60** **생활과학 이야기**
날마다 성큼성큼 봄이 오는 속도

**61** **역사가 된 정책**
"천하는 넓다네" '혼일강리도'의 시선

**62**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법원 사건기록 표지 … 원고는 紅, 피고는 靑

**63** **카툰 에세이**

**64** **소통과 공감**
오래된 사진, 오래된 기억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위클리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발행일** 2015. 2. 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김종덕
**제작협력** 동아일보사
**인쇄제본** 프린피아
**제작문의** 044-203-3016
**구독문의** 02-2625-3294 jjsmall@korea.kr

# 댓글에 답글

**더 가까이, 더 빠르게**
**디지털로 만나는 〈위클리 공감〉**

모바일, 태블릿, PC 등 어디서나 〈위클리 공감〉의 주요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고 공유하세요.

**〈위클리 공감〉 디지털 기사, 이곳에서 만나세요!**

탭진 리디북스 블로그 페이스북

해당 서비스는 iOS,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든 디바이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korea.kr/gonggam
**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tapzin.com/app/
ridibooks.com
koreablog.korea.kr
www.facebook.com/wegonggam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290호 '불필요한 논란 접고 스포츠 4대악 근절에 힘 쏟아야'를 읽고**

우리 사회 전반이 부정과 비리로 뒤엉켜 있는데 스포츠계마저 이런 현상이 극심해 안타까웠습니다. 때마침 정부에서 우리 사회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스포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비리는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도형(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체육계에 부정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현재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체육단체 운영 개선, 경기 공정성 제고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 비리 관련 수사뿐 아니라 체육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작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혜수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290호 '월세 주거 불안 해소 뉴 스테이 임대주택 공급'을 읽고**

기업형 민간 주택임대사업으로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희소식을 접했습니다.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면, 주거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 겁니다. 이 사업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 개념이 거주 개념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한상대(인천 부평구 경인로)

그간 임차 거주를 희망하는 중산층들은 각종 주거 불안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임대주택에서 비자발적인 퇴거 위험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뉴 스테이'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거주 안정성이 높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태 사무관(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2월 16일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 편집실에서

감옥 안 낡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던 클래식 음악이 극장 안을 가득 채우던 영화 〈쇼생크 탈출〉만큼 예술의 정의를 선명하게 압축해 보여주는 장면이 또 있을까. 비록 영화 같은 극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상처 입고 훼손되는 자아를 지키고, 모욕당하는 자존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면 그것은 간수들의 위협 속에서도 빛을 발하던 예술일 것이다.

몇 달 전부터 독일 철학자 페터 비에리의 저서 〈삶의 격〉이 조용히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페터 비에리는 인간의 가장 큰 정신적 자산이지만 삶 속에서 가장 위협받기 쉬운 가치이기도 한 존엄성을 어떻게 지키며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질문에 대한 궁극의 답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질문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정신적 여백, 짧은 쉼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예술의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예술꽃 씨앗에 물을 주고 싹을 틔우는 이유도 거기 있을 것이다.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 알림 게시판



## 국립해양박물관 '제2기 대학생 기자단' 모집

**응모 주체** 국립해양박물관
**응모 자격** • 전국의 대학생 누구나
• 우대 조건 : 현재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운영자 /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활용이 가능한 자 / 글쓰기 및 사진, 영상 촬영에 능숙한 자
**선발 일정** 서류 접수 후 심사와 면접
**지원 서류 및 방법**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1부, 기획안 1부를 내려받아 이메일(nmm@nmm.go.kr)로 제출
**제출 시 파일명**
대학생기자단지원자_이름.hwp
**접수기간** 2월 20일까지
**활동기간** 3월 2일~12월 31일
**활동 내용** • 콘텐츠 제작
취재기자는 월 2건 이상 기사 작성
영상기자는 월 1건 이상 영상 기사 작성
• SNS 활동 :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활동
**활동 보상** 소정의 활동비 지급
기자단 공식명함 지급, 위촉장 수여
수료증 발급, 우수기자 포상
**문의** 051-309-1922



## 2015 장애인고용 인식 개선 작품 현상 공모

**응모 주체**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응모 주제** 장애인 고용
(슬로건 : 함께 일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응모 분야** 에세이, 인쇄매체 디자인, 사진 등 3개 분야
**응모 자격** • 장애인 고용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
• 인쇄매체 디자인 분야는 최대 2인으로 팀 참여 가능
• 각 분야별 3작품까지 제출 가능
**응모 방법** 공모전 홈페이지(www.keadcontest.co.kr) 통해 작품 접수(홈페이지 2월 오픈 예정)
**시상 내용** • 최우수상 분야별 1명
상금 각 250만 원
• 우수상 분야별 1명
상금 각 100만 원
• 장려상 분야별 5명
상금 각 50만원
**접수기간** 2월 2~27일
**문의** 02-6395-3127

# 삼세판 퀴즈

**01** 올해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을 선정하기에 앞서 ○○○○를 실시한다.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수요에 걸맞은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02**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인문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인문학, 자연과학 등을 융합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03** ○○○ ○○ ○은 지난해 1월부터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 1300여 곳이 참여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영화, 공연, 미술관·박물관 전시 등을 할인된 가격이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 〈위클리 공감〉을 읽어보세요.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빈칸의 답을 '삼세판 퀴즈 292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2월 16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세종특별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우 339-012)**

**〈위클리 공감〉 290호 삼세판 퀴즈 정답**
**01** 5만 원 **02** 15만 원, 20만 원

**〈위클리 공감〉 290호 삼세판 퀴즈 당첨자**
박성호(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최문석(전북 남원시 아영면 구상길)
전혜인(대구 북구 연암로) 김도희(부산 부산진구 국악로) 허상호(서울 노원구 노원로)

**바로잡습니다**
〈위클리 공감〉 290호(1월 19일자) 독자 마당 삼세판 퀴즈 내용 중 세 번째 질문은 제작상의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 신학기 원룸

# 새 학기 원룸 구하는 똑똑한 방법

**1월 28일 오전 KT 광화문지사 1층 '드림엔터'에서 열린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 결과 발표'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이 원룸 거래 시 꼭 필요한 6가지 중요 확인 사항이 적힌 안내판을 들고 홍보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주거 실태조사팀에서 마련한 것으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었다**(관련 그래픽 9면). **사진** 김형우 기자



# 공감 Briefing

## 숫자로 보는 뉴스

**8만1000원 vs 7만2000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우리 국민은 1인당 평균 7만7000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8만1000원, 여성이 7만2000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9만3000원, 40대가 8만8000원, 30대 8만1000원, 60대 이상이 7만 원, 20대 4만6000원 순이었다.

**6165만 2158명**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나간 출입국자 수는 6165만 2158명으로 2013년 5496만여 명보다 12.2%가 증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출입국자 중 우리 국민은 3272만2368명이고, 외국인은 2892만979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1268만2019명 중 중국인이 566만 명(44.7%)으로 가장 많았다.



**2공기 미만**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이 지난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를 보면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78.2g으로 전년보다 5.8g 감소했다. 밥 1공기를 쌀 100g으로 가정하면 하루에 밥 2공기도 먹지 않는다는 의미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80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40만3500명**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출생아 수. 통계청이 1월 26일 발표한 '2014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 출생아 수는 40만 35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40만 4500명)보다 1000명 적어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10월까지만 해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0명 더 많았지만, 11월 출생아(-4.4%)가 줄면서 지표를 끌어내렸다. 결혼도 11월까지 27만139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 감소했다.

## 이 주의 키워드

**군데렐라**

'군인+신데렐라'의 합성어로, 호주에서 열린 2015년 아시안컵에서 맹활약한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이정협 선수(상무)를 두고 하는 말. 키가 186cm로 대표팀 공격진에서 가장 큰 이정협은 부상으로 빠진 이동국과 김신욱을 대신해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그동안 특별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던 그가 대표팀에 발탁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슈틸리케 감독이 주문한 전방 압박, 공중 볼 싸움, 공수 연계 플레이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매김했다. 매 경기마다 타고난 운동 능력에 순간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볼을 골문으로 밀어넣는 탁월한 감각을 입증한 이정협의 '킬러 본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원룸 구하기 8단계




01 내집의 우선조건 설정하기




02 여러곳의 매물 & 시세 비교하기



03 현장 답사로 원룸 상태 확인하기

| 거래금액<br>보증금+(월세x100) | 수수료율 | 한 도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1억 | 0.4% | 30만원 |
| 1억~3억 | 0.3% | 없음 |



04 복비책정 및 계산하기



05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꼭 확인하기



06 계약서는 꼭 작성해서 보관하기




07 이사 일주일전 미리 이전신고하기



08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아 내 보증금 지키기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청년위원회 홈페이지(**pcyg.you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 사진기자단

**1** 박근혜 대통령이 1월 28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영화 〈국제시장〉을 상영 중인 서울시내 영화관을 찾았다. 한국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그려낸 주인공 덕수 역의 황정민 씨가 기념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주위 관객들과 함께 웃고 있다.
**2** 박 대통령이 영화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3** 1월 '문화가 있는 날' 서울역 오픈 콘서트홀에서 어린이 요들합창단의 공연이 열렸다.
**4** 공연을 즐기고 있는 관객들.
**5** 요들송을 부르고 있는 가수 이은경 씨.
**6,7** 이날 행사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이 있는 역'이란 주제로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개최됐다.

# 함께 즐겨요, 문화가 있는 날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이러한 취지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공연 할인뿐만 아니라 경복궁, 창덕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관람은 무료다. 농구, 배구, 축구,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은 50% 할인되고 국립현대미술관 등 박물관, 미술관은 할인되거나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카메라에 1월 ‘문화가 있는 날’을 담았다.** 사진 조영철 기자


3


4


5



6

문화융성위원회


7

www.culture.go.kr/wday

# 문화(文化)로 통하는 문화(門化)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나의 스케줄러에는 마법같은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저렴한 할인으로 통하고, 놀라운 혜택으로 통하고, 영원한 추억으로 통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문화의 세상으로 떠나보세요!




## '문화가 있는 날'이란?

2014년 1월부터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반인들이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한 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중점기획

# 문화꽃 키우는 메세나 기업들




활짝 웃는 모습이 예쁜 대전 대신초등학교의 예술꽃씨앗들이에요.
문화예술을 가까이 접하기 힘든 지역 학교를 지원해 어여쁜 예술꽃씨앗을 가꾸는 정부 사업에 기업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역생활을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작은영화관에도,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생활의 문턱을 낮춰주는 '문화가 있는 날'에도 기업들의 메세나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와 문화예술이 상생할 때 문화융성의 기치도 높아집니다.

**중점기획**
문화꽃 키우는
메세나 기업들
(민관 협업 지원)

# 자칫 시들어버릴 예술꽃 물을 주고 빛을 줍시다

## 신한은행, 예술꽃씨앗학교 → 예술꽃새싹학교로 지속 지원 약속

**박경아** | 위클리 공감 기자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대금 등 우리 전통악기들이 어우러지는 소리가 경쾌하다. 대전 중구의 보문산 자락에 자리 잡은 대신초등학교 3층 대강당에서 울려 퍼지는 국악관현악 연주곡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공식 음악인 '프런티어(Frontier · 양방언 작곡)'. 숙련된 솜씨여서 눈감고 들으면 과연 초등학생들이 하는 연주일까 싶다. 맨 앞에 앉아 아쟁을 맡은 채연(5학년), 언니 주희(5학년)와 함께 해금을 연주하는 한빛(4학년), 태평소 부는 체격 좋은 인채(6학년), 이들 모두 대신초교 아이들이다.

개교 당시(1966년)만 해도 16학급이었던 이 학교는 주변이 보문산에 가로막혀 개발이 안 되고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면서 전교생 90명(병원학급 포함 7학급)의 미니학교로 축소됐다. 오래된 골목동네의 이 학교 아이들이 능숙한 국악 연주자로 변신한 것은 이 학교가 2011년 '예술꽃씨앗학교'로 선정되면서부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 시작한 '예술꽃씨앗학교'는 농산어촌 등 문화 소외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전교생이 국악, 관현악, 연극, 영화, 디자인, 공예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과 표현력을 기르고 창의적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 4년간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신초교는 학부모 상당수가 생계형 맞벌이 부부이고, 공동화된 도심지역에 있다는 점에서 예술꽃씨앗학교 지원 대상이 됐다. 국고 지원을 받아 각종 국악기를 구입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국악을 통해 아이들의 예술적 꿈과 재능의 씨앗을 키워왔다.

학부모 대부분이 사교육을 시킬 형편이 안 되는 가정환경을 가진 이 학교 아이들은 오후 5, 6시까지 학교에 머물며 각자 적성에 맞는 국악기를 익히고 이 지역 전통 풍물놀이인 웃다리농악, 국악관현악, 대취타(전통군악) 등을 연습했다. 제법 악기들의 합을 맞추게 된 다음에는 여러 행사에서 솜씨를 선보였다.

지난해 10월 21일에는 서울 강동아트센터에서 다른 지역 예술꽃씨앗학교 학생들과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꿈을 먹는 하루' 공연을 펼쳤다. 신나는 풍물놀이부터 흥겨운 밴드, 수준 높은 연극과 뮤지컬까지 예술꽃씨앗학교 2기 16개 초등학교 아이들이 번갈아 무대에 오른 꿈같은 하루였다.


조영철 기자

### 문화적 감수성
### 창의적 인성 키우기

하지만 학교는 고민에 빠졌다. 아이들 가슴에, 생기 잃은 지역에 문화적 활기를 되살린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이 2014년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희망이 나타났다. 신한은행이 1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꽃씨앗학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지원이 종료되는 예술꽃씨앗학교 중 일부를 '예술꽃새싹학교'로 선정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송권석 대신초교 교장은 "예술꽃씨앗학교는 문화예술 활동

**'예술꽃씨앗학교'**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 시작한 '예술꽃씨앗학교'는 농산어촌 등 문화 소외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전교생이 국악, 관현악, 연극, 영화, 디자인, 공예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과 표현력을 기르고 창의적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 4년간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영철 기자



대신초등학교 아이들이 국악관현악 연습을 하고 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지요. 내 옆에 앉아요…."*

**'상담사 인형씨' 에세이 중에서**


1


2

을 통해 아이들이 웃음과 자신감을 찾게 해주고 행복한 아이들로 만들어주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예술교육이 가능하게 해준 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대신초교는 예술꽃씨앗학교로서 정부 지원을 받으며 국악에 서양악기를 접목하는 '퓨전국악'으로 2013년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경진대회 초등부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전시교육청 주관 2014학년도 학교 평가에서 최우수 학교로 선정됐으며, 국가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이 한 건도 없는 학교로 나타났다.

'로컬푸드'로 유명한 전북 완주군의 간중초등학교 역시 이번 신한은행과의 협약으로 희망을 갖게 된 학교다. 전교생 73명, 교장·교감을 제외한 교사 8명인 이 미니 학교는 2011년 전북 최초로 전교생이 국악을 배우는 예술꽃씨앗학교로 선정되어 손이 덜 여문 1, 2학년 아이들은 풍물놀이를 배웠고, 3학년 이상 아이들은 가야금, 거문고, 아쟁, 대금, 태평소 등 9가지 악기를 익혀 국악관현악단으로 활동했다.

임양환 간중초교 교장은 "더 발전시킬 가능성이 보였으나 이제 끝이다 싶어 안타까웠는데, 새싹학교란 단계가 생겨 희망을 갖게 됐다"며 새싹학교로 선정되면 4년간의 결실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주 외곽의 외진 곳에 있는 간중초교는 연간 수천만 원의 국고 지원을 받아 전교생 모두 수준 높은 국악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자부심을 가지며 지난 4년간 학생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임 교장은 이러한 외적 성과보다 아이들의 내적 성장과 잠재력 향상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소외지역 아이들은 문화적 여건이 갖춰진 도회지 아이들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력으로 접하기 어려운 국악의 여유로움을 맛보고, 관현악단이란 어울림까지 가봤다는 건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더 넓은 세상


3

을 만났을 때 내면에 쌓아둔 잠재력이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가질지 예측하기 어렵죠."

## 4년간의 결실
## 새로운 출발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신규 지원 대상 20개교를 포함해 전국 47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예술꽃씨앗학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총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당 연간 6000만~9000만 원을 지원해 전교생이 1인 1분야 예술 활동으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창의성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예술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이 종료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신한은행 후원의 '예술꽃새싹학교'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문화예술을 꽃피울 새싹들을 키워낸 뒤 마지막으로 학교의 자력과 지역의 도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신규 지원 대상 20개교를 포함해*
*전국 47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예술꽃씨앗학교 사업을 펼치고 있다.*



❶ 지난해 시간여행자 전시회에 선보인 '숨쉬는 작품'.
❷ 시간여행자의 포토에세이 '상담사 인형씨'.
❸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을 받은 대전 남선초등학교.
❹ 경기 옥천초등학교의 음악수업 시간.



스스로 성장하는 '예술꽃망울학교'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예술의 씨앗을 뿌리고, 기업이 자립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셈이다.

예술을 통해 아이들의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또 다른 민관협업 프로그램이 '시간여행자(The Time Traveler)'다. 시간여행자란 사진, 역사, 환경 등을 매개로 청소년들의 정서교육을 뒷받침해 '나'를 발견하고 자신의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2012년부터 두산의 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ARCON)가 주관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만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예술 소외계층 중심으로 선발한다.

1기 58명, 2기 97명에 이어 지난해 3기 94명의 청소년들이 6개월간 '발견', '공감', '희망'이라는 주제로 서울이라는 공간에 대해 토론하고 출사를 나가 직접 찍은 사진 300여 점과 에세이를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서울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전시했다.

시간여행자는 든든한 멘토와 동반여행을 한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역사학자인 신병주 건국대 교수와 함께 캠프를 떠났고, 김중만 사진작가와 동행 촬영을 하며 시야를 넓혔다.

ARCON이 중앙대 청소년학과의 임영식 교수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시간여행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아 존중감, 사회성, 정서적 공감 등이 프로그램 참여 이전보다 증진됐으며, 생리신호 측정 결과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권석 대신초교 교장도 문화예술 활동의 가장 큰 교육적 효과로 감수성과 인성 함양을 꼽았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지만, 요즘은 기저귀 찬 나이부터 공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 타인을 배려하고 다른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는 교육을 가정에서 받지 못해요. 더구나 돌봄 기능이 약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다른 아이들과 박자와 화음을 맞춰가는 예술 활동은 최고의 감수성 교육이자 인성교육이지요."

##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내면의 징검다리 놓아주기

예술꽃씨앗학교 아이들, 시간여행자 청소년들 모두가 탄광촌 소년이 발레리노로 성장하는 영화 〈빌리 엘리어트〉 주인공만큼의 재능을 지닌 영재나 신동은 아닐는지 모른다. 하지만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자체만으로 예술의 즐거움을 맛보고 내면의 힘을 길러 인생의 고비를 극복하고 감성의 단비를 받아들일 토양을 기를 수 있다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교육적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G

# 늘어가는 작은영화관 풍성해지는 '시네마 천국'

## 작은영화관 연내 30곳 개설, 국민은행 2014년부터 후원

박경아 | 위클리 공감 기자

지역주민들에게 멋진 '시네마 천국'을 선사하기 위해 작은영화관 사업 활성화에 기업이 참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19일 작은영화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작은영화관 활성화를 위해 2014년 3억 원을 지원했으며, 2015년 이후에는 '영화사랑' 저축상품(2010년 7월부터 시판) 판매 실적을 감안해 지원하기로 했다.

작은영화관이란 영화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신 개봉영화 관람이 가능한 멀티플렉스 수준의 영화 상영관을 만들기 위한 사업.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하는 작은영화관 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월 5일 인천 강화군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작은영화관이 처음 문을 연다.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문예회관 2층에 들어서는 강화작은영화관은 강화군 사상 첫 개봉 영화관이기도 하다. 강화군에는 지역 내 유일한 영화관이었던 재개봉 영화관 '강화극장'이 있었으나 1991년 재정난으로 폐관했다.

재개봉 영화관이란 다른 영화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영화를 뒤늦게 다시 상영하는 영화관이다. 이마저도 문을 닫으면서 강화 주민은 지난 24년간 영화를 보려면 인근 김포나 인천, 혹은 서울로 영화 원정 관람을 떠나야 했다.

강화군민 강복희 씨는 "강화읍에서 영화관이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김포인데, 버스 타고 김포 가는 데만도 4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영화를 본다는 생각을 못 하고 살았다"고 했다.

강화군민들의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강화군의 지원 신청을 받아 총 9억 원(정부와 강화군 절반씩 분담)을 들여 강화문예회관 2층 소공연장을 리모델링해 1개관 87석 규모로 영화관을 조성했다. 영상 제작 관련 교육과 세미나가 진행되는 미디어센터도 같은 건물에 들어선다.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작은영화관.

강화작은영화관에는 지역 간 영상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최신 시설을 갖추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대형 스크린과 현장감 있는 음향을 즐길 수 있는 5.1채널 음향 시스템, 첨단 디지털 영상설비 시스템에다 3D 입체영화 상영설비까지 갖췄다. 반면 관람료는 일반영화(2D) 5000원, 3D 영화 8000원으로 인근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60% 수준. 저렴한 가격에 최신 영화를 첨단 설비로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고품격 문화공간
### 지역주민들 사랑방

1개관에 불과하지만 붉은색 커버의 널찍한 의자들이 배치된 영화관 내부는 대도시 멀티플렉스 영화관 못지않은 고품격 문화공간으로서의 분위기를 풍긴다. 국민은행의 지원금은 바로 이 고품격 문화공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의자 구입비로 사용됐다.

국민은행이 2014년에 지원한 3억 원은 강화군작은영화관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문을 여는 강원(삼척시, 철원군, 평창군), 전남(장흥군, 함평군), 충남(예산군, 서천군), 경남(남해군)의 정부 지원 작은영화관의 의자 구입비(영화관당 100석 기준 3000만 원)로 사용된다.

강화작은영화관에는 대도시 영화관 부럽지 않게 팝콘과 나초, 탄산음료 등을 판매하는 매점도 운영된다. 매점을 포함한 강




**작은영화관 현황**

| 구 분 | 계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br>(광역특별회계 50% + 지방비 50%) | 지방자치단체 자체 추진<br>(지방비) |
|---|---|---|---|
| 2015년 개관 계획 | 21개관 | **상반기** 인천 강화군, 강원 삼척시 · 철원군 · 평창군, 전남 장흥군 · 함평군, 충남 예산군 · 서천군, 경남 남해군<br><br>**하반기** 강원 정선군, 경북 영양군 · 고령군, 경남 사천시 · 합천군, 전남 해남군 · 광양시, 충북 영동군, 울산 울주군 | 강원 영월군, 전북 진안군 · 순창군 |
| 2014년 이전 개관 | 9개관 | – | 전북 장수군 · 김제시 · 임실군, 강원 홍천군 · 화천군, 전북 고창군 · 무주군 · 부안군 · 완주군 |

화작은영화관 운영자로 선정된 곳이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이다. 2010년 11월 작은영화관의 시초로 전북 장수군에 문을 연 한누리시네마 운영자로 그간 다른 지역의 작은영화관 운영을 맡으며 노하우를 쌓아왔다.

조합의 안준호 운영지원이사는 "작은영화관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요금제가 있는 대도시 영화관들과 달리 주말에도 동일한 요금제를 적용해 주민들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조합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강화작은영화관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9곳, 하반기 9곳 등 총 18개의 정부 지원 작은영화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총 100석 규모(1개관 50석 내외 총 2개관) 1개관당 약 5억 원이 지원된다. 강화작은영화관과 같이 지방비 50% 매칭과 문화회관 등 유휴시설 또는 신축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신청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추진하는 작은영화관도 올해 3곳 더 문을 열 계획이어서 올해 말까지 전국에서 모두 30개의 작은영화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기업 후원까지 더해진 작은영화관들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이 한층 풍성해질 전망이다. G




**지난해 4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열리는 금호아시아나의 로비 콘서트.**

# 문화와 함께 한 옥타브 성장하는 기업

## 신세계 · 현대백화점 · 금호아시아나 · CJ CGV 등 '문화가 있는 날' 메세나 활동 · 매칭 지원 봇물

**메세나란?**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용어다. 메세나의 어원은 로마시대의 문화예술 후원자이자 정치가인 가이우스 클리니우스 마에케나스의 이름에서 유래됐으며, 메세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것이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가다. 메디치가는 350년간 가문을 이어가며 미켈란젤로, 도나텔로, 보티첼리 등 예술가들을 후원해 르네상스를 일으킨 원동력이 되었다.

박경아 | 위클리 공감 기자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은 최근 예술꽃씨앗학교, 작은영화관 등 문화 소외계층·소외지역에 대한 징검다리 후원활동뿐 아니라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시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이 도입된 지난해에는 특히 국민의 생활 속 문화활동 확산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어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지난해 1월부터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 최대 1300여 곳이 참여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영화, 공연, 미술관·박물관 전시 등을 할인된 가격이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 신세계百 '신세계 마티네 콘서트'

소비자와 지근거리에 있는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들이 '문화가 있는 날' 참여를 통해 문화예술 메세나로 나서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해 3월 17일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가치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문화가 있는 날'에 신세계백화점 전점에서 무료 클래식 공연인 '신세계 마티네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마티네'란 프랑스어 '마탱(matin·아침)'에서 나온 말로, 마티네 콘서트는 낮 시간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연극이나 오페라 등 공연이다. 짤막한 해설이 곁들여지기도 한다.

신세계 마티네 콘서트는 저녁 공연 관람이 쉽지 않은 주부들과 소외계층의 편의를 위해 오후 2시에 시작하며, 출연진도 평소 접하기 어려운 피아니스트 손열음·박종훈·조재혁, 첼리스트 양성원·송영훈, 바리톤 서정학,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 등 클래식 스타들을 중심으로 한 고품격 클래식 공연으로 기획됐다.

신세계 마티네 콘서트는 특히 본점(서울 명동)뿐 아니라 센텀시티점(부산), 경기점(용인), 인천점, 충청점(천안), 의정부점 등 지점을 통해 전국 공연으로 확산되었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에서는 국내 정상급 클래식 스타들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젊은 연주자들에게는 인지도를 높이는 '지방 투어' 효과를 얻게 해주고 있다.

신세계 마티네 콘서트는 일반인들에게 선착순으로 티켓을 배부함과 동시에 인근 전통시장 상인, 다문화 가족, 소외계층 어린이 등을 초청해 한층 의미 있는 공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세계는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2015 신세계 마티네 콘서트'를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스타, 젊은 클래식 스타들의 공연을 기획해 문화향유와 가치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신세계 CSR사무국 정동혁 상무는 "신세계는 신세계 마티네 콘서트 외에도 국립국악유물전과 예술의전당 토요콘서트 지원,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신세계 마티네 콘서트.








❶ 현대백화점이 예술의 문턱을 낮춘 초대 공연 슈퍼스테이지.
❷ 영화관 입장료 할인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후원하는 CJ CGV.
❸ 벽산엔지니어링의 오랜 후원을 받고 있는 현악실내악단 세종솔로이스츠.
❹ 포스코1%나눔재단이 후원한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카네기홀 공연.

신세계 클래식 페스티벌, 백화점 갤러리 운영 등 다양한 문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문화향유 확산과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百 올 169회 무료 문화 콘텐츠 제공

현대백화점도 지난해 9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과 문화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화가 있는 날' 참여를 통한 문화 저변 확대와 신진 예술가 발굴, 퇴근길 인문학 강좌 등 연간 20억 원 규모의 문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협약 체결 후 첫 '문화가 있는 날'이었던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전국 11개 지점의 문화홀에서 콘서트, 뮤지컬, 연극, 영화시사회, 유명인 강좌 등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연말까지 점별로 매달 1회씩, 총 169회의 무료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바쁜 일상으로 문화체험을 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백화점 문화센터의 인문강좌를 추가로 개설했으며 미래 세대의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해 아동극, 체험전, 전시회 등 교육·체험형 문화행사를 정례화했다.

### 금호아시아나 '로비 콘서트' 명성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4월부터 매월 '문화가 있는 날'에 열고 있는 '로비 콘서트'로 명성이 자자하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로비는 음악회장으로 변신해 자사 직원들은 물론 인근 직장인, 주민들까지 무료로 고급 콘서트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이곳에서 금호문화재단이 기획한 영아티스트 콘서트가 열려 향후 문화예술 공급자로 성장할 고교생, 대학생 등 젊은 연주자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CJ CGV 영화관 입장권 할인

멀티플렉스 영화관 CJ CGV는 지난해부터 '문화가 있는 날'에 영화관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28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 9개 CGV 극장에서 '호두까기인형 공연 실황 무료상영회'를 개최해 클래식 공연의 향기를 영상으로 전달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시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이 도입된 지난해에는 특히 국민의 생활 속 문화활동 확산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어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4

CJ CGV와 CJ E&M, 예술의전당 3사가 체결한 우수 공연 및 전시 콘텐츠 영상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호두까기인형'은 2013년 12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열린 국립발레단의 공연 실황 영상으로, 고화질 영화용 카메라와 특수촬영 장비를 총동원해 무대 위 아티스트들의 표정과 몸짓을 생동감 있게 담아냈다.

### 포스코·벽산엔지니어링 등 1%나눔재단 & '매칭 그랜트'

이 밖에도 경제력이 미약한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전통적' 메세나 활동에 꾸준히 기여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포스코 임직원들의 급여로 조성한 포스코1%나눔재단은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이 음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시각장애인들로만 이뤄진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포스코1%나눔재단 지원 덕분에 지난해 5월 1일부터 11일까지 카네기홀과 뉴욕 순회공연에 나서 남다른 예술혼으로 감동무대를 펼쳤다.

중견기업 벽산엔지니어링도 지난 30년간 문화예술 후원으로 명망 높은 기업. 지난해 창단 20년을 맞은 세계적인 현악실내악단 세종솔로이스츠 활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으며, 2013년부터 임직원이 월급의 0.5%를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의 벽산나눔매칭펀드를 운영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도시환경 재생 프로젝트 등에 기부했다.

'문화가 있는 날'이 촉발한 기업의 메세나 바람을 반영하듯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Art&Business)' 실적도 지난해 크게 늘었다. 기업 지원에 비례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로 연결해 지원하는 기업·예술 만남 사업은 2014년 194건, 23억 원을 기록해 전년(120건, 10억 원)에 비해 74건이 늘고 액수는 2배 이상 급증했다. 2006년 17건, 3억 원 규모로 출발한 기업·예술 만남 사업은 2012년까지 100건 10억 원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해 7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을 바탕으로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역량 있는 메세나협회 등을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로 인증·육성하고, 우수 메세나기업을 문화예술 후원기관으로 인증하는 등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조세 지원을 목적으로 한 조세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서도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법 시행 후 첫 번째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 및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이 올 2월 이뤄진다.

활짝 펼친 두 손이 아낌없는 후원을 상징하는 인증마크,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가 디자인했다. G

**2015년 정부 부처 마지막 업무보고는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난 2년간 정부가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알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다. 1월 22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는 '국민행복'을 주제로 한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지원 체제를 구축해 국민 체감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며 부처별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업무보고를 토대로 국민행복이 구현될 수 있게 모든 부처의 가열찬 실천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체감 행복지수 높여 희망 대한민국 문 함께 연다

## 각 분야 협업 국민행복 증진과제 지속 발굴 추진

김진수 | 위클리 공감 기자

정부는 2015년을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해가 될 수 있게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교육,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지원체제를 구축해 국민체감 행복지수를 높이기로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6개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행복만 생각하겠습니다. 희망 대한민국, 함께 열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보고는 올 들어 부처 간 협업과 유기적 정책 연계에 중점을 둔 주제별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로, 두 번에 걸친 '경제혁신 3개년 계획'(1월 13, 15일) 업무보고와 '통일 준비'(1월 19일), '국가혁신'(1월 21일) 업무보고에 뒤이은 것이다.

이날 보고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된 것은 ▶창의인재 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구현(교육부,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 및 일·가정 양립(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로 행복한 삶(문화체육관광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환경부) 등 네 가지 주제에 관한 것이다.

### ▸ 창의인재 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구현

정부는 꿈과 끼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학기제'를 적극 추진한다. 중학생이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토론, 동아리, 진로 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체 중학교의 70%까지 확대 실시된다. 대입 전형과 연계한 중·장기 수능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도 준비한다.

또한 유치원에 대한 폐쇄회로(CC)TV 설치 비율을 올해는 전체 유치원의 80%, 내년엔 9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관련기사 54쪽). 수사·의료기관과 연계해 아동학대사건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취업 및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올해 9개교에 도입해 운영하고, 가칭 '취업보장형 고등전문대' 16개교를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 3개월~1년 전에 채용 기준을 공개토록 하고, 민간기업의 자율적 참여도 권고키로 했다. 또한 학벌이나 학점, 토익 등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주요 공공기관 100곳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무능력 평가·채용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내년엔 200곳으로 늘리고, 2017년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 ▸ 맞춤형 복지 및 일·가정 양립

정부는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태와 관련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학대 교사 및 원장을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 자격요건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경력단절 주부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등 557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며, 대형병원의 일반병상을 대폭 늘리는 등 국

#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 창의·인성 교육

- 중학교 자유학기제
  - '15년 중학교 70% (2,230개교) → 확대 → '16년 중학교 100% (전체 중학교)
-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확정
  - ※ ('17) 초1·2 적용 → ('18) 중1·고1 적용
- 수능영어 절대평가
  - ※ 2018 학년도 수능부터 적용



## 현장 중심 직업교육

-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도입·운영(9교)
- 취업보장형 고등전문대 육성(16교)
  - 중3학생 선발 → 고등학교 3년 → 전문대 2년 → 채용약정 기업 취업
-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 ※ ('14) 300명 → ('15) 3,000명
- 채용 약정 기반 현장 실습 학기제

## 경쟁력 있는 대학

- 대학구조개혁평가 실시
-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
- 지방대 우수 외국인 학생 3만명 유치
- 분야별 우수 특성화 대학 육성
  (수도권 28교, 지방 79교)

## 안전한 학교

- 유치원 CCTV 확대
  - ※ ('15) 80% → ('16) 90%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제 의무화
  - '14년 55.5% → 확대 → '15년 100%
- 학생 발달단계별 안전교육 실시
- 노후건물 진단·재해위험시설 조기 철거

## 맞춤형 교육복지

- 누리과정 최소 운영시간 1시간 확대
  - 3~5시간 → 4~5시간
-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
  - ※ 등록금 부담 경감률 : ('14) 48% → ('15) 50%
-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강화
  ('14) 2,760명 → ('15) 3,000명



## 100세시대 평생교육

- 성인 단과대학(학부) 신설
- 평생직업교육대학 (전문대학) 육성
- K-MOOC 강좌 확대
  - '15년 20개 → '16년 100개 → '18년 500개
- 국가 평생학습포털 콘텐츠 확대

자료 : 교육부

민 건강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84.8%(누적)까지 경감하고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의 일·가정 양립 관련 고충상담 및 컨설팅,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교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도 신규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부모의 일·가정 양립도 적극 지원한다. 아동 양육비를 연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업 등과 협력한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이혼·미혼 한부모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도 본격 출범시킨다. 여성의 경력 유지 지원을 위해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기간 및 횟수를 확대하고 출산 후 자동 육아휴직을 확산한다.

### ▸ 문화로 행복한 삶

정부는 한류 확산의 중추 구실을 할 민관 합동의 '한류기획단'을 올해 상반기에 출범시키고 2000억 원 규모의 한·중 공동발전펀드를 조성해 투자에 활용하는 등 콘텐츠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한다. 아울러 저작권보호원 설립을 통한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 일원화,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 설립 등으로 관련 인프라도 정비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문화가 있는 날'을 적극 확산시킨다. 특히 브랜드 공연, 직장·학교·거리 등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생활문화센터 및 문화체육 자원봉사 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해서도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적극 체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정부는 미세먼지, 녹조, 유해물질, 악취 등 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단위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폐가전 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선풍기 등 중형 제품으로까지 확대한다. 또한 환경 불편사항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저비용, 고효율의 과

학적 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하고 환경 규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민행복' 실현 과제에 대한 총괄보고 직후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의 부처별 보고가 이어졌다. 보고 이후 이들 부처는 9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교육·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보고한 과제대로 정책이 잘 추진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연말에는 행복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며 "보고 내용들이 확실하게 실천으로 이어지고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창의인재 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주제로 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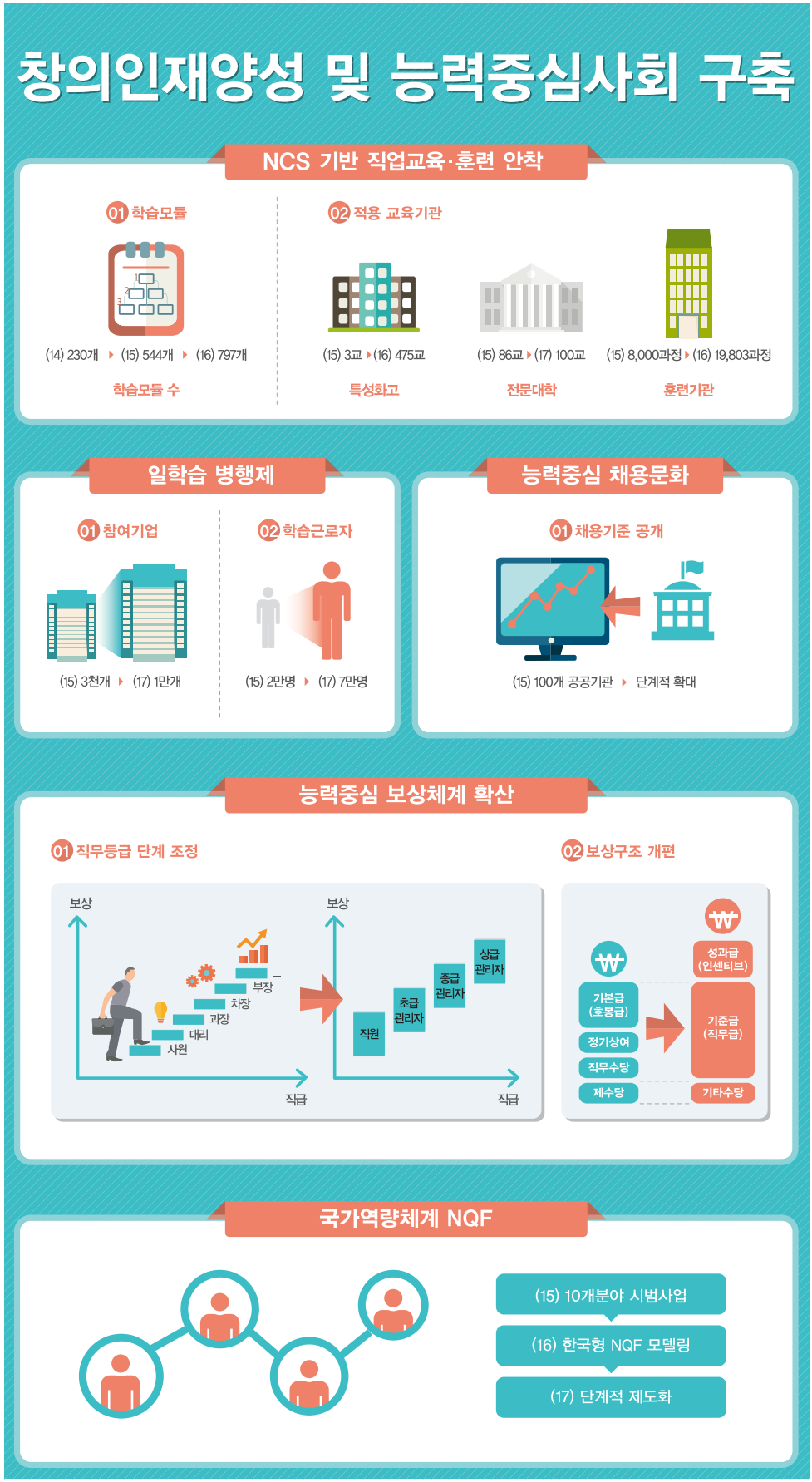
##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꿈·끼 교육 확산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교육혁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올해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의 70%까지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교육부 내에 전담추진단(국장급)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 기반시설을 전국 중학교에 개방하고,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을 진로체험 지원센터로 활용한다. 정부 부처, 공공기관의 직업체험 제공 의무화('진로교육법' 제정)를 통해 더욱 풍부한 체험활동도 제공할 계획이다.

창의성을 키울 수 있게 교육과정 개편과 대입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장 교원의 참여를 30%로 확대하고 포럼,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 2015 개정 교육

자료 :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교육혁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올해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의 70%까지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교육부 내에 전담추진단(국장급)을 설치하기로 했다.*

과정(문·이과 통합형)을 9월에 확정한다.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 방지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고,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입 전형과 연계한 중·장기 수능 개편방안 마련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 적용)을 준비하고 의사소통 중심 학교 영어교육도 실시한다.

인성교육도 강화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나간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국가 및 시·도교육청 단위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고교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대학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대입에서 인성평가가 내실화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인적 성장을 위해 체육과 예술교육도 활성화한다.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고교 전 학기 체육수업을 실시하며 교육과정에 '연극' 교과를 개설하는 등 학교의 체육·예술교육을 전면 지원한다.

유아교육 강화를 위해 누리과정 운영시간도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확대한다. 학교교육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중앙 부처에서 기초자치단체 단위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사회 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본격화한다.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 한부모(미혼모)가 학력을 취득할 수 있게 사회·종교기관과 협력해 기숙형 위탁교육시설도 확대할 방침이다.

### 산업수요 중심 인력양성체제 개편

### 일·학습 병행 교육·훈련 확산

교육부는 올해 직업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혁신해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기른다. 가칭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올해 9개교에 도입·운영하고, 2017년까지 전국의 모든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41개교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도제훈련 기반을 확충한다. 또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부터 취업을 보장받고 미래 직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하는 가칭 '취업보장형 고등전문대'를 올해 16개교에 시범 도입한다. 희망하는 모든 일반고 학생에게 특성화고 전학, 산업정보학교 확대 등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대, 폴리텍,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한 직업교육·진로 상담도 제공한다.

대학과 산업 간 인적 자원 '미스매치(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학 체질도 혁신한다.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기초로 권역별로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통해 학과 개편, 정원 조정 등으로 인력 공급을 조정함으로써 양적 '미스매치'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질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대학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취업보장형으로 혁신한다. 이를 위해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등을 확대한다. 동시에 대학의 창업휴학제 등을 활성화하여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안착시킨다.

### 직무능력 중심

### 채용문화·보상체계 확산 지원

직무능력 중심 보상체계 확산도 지원한다. 민간부문의 보상체계가 직무능력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게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에서 필요한 임금정보와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이를 공공부문 및 대기업이 선도하도록 우수 사례 등을 통해 선도그룹을 발굴하고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한다.

개발된 NCS를 산업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현장성도 강화한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NCS 운영 전담기관으로 선정해 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NCS 위키피디아를 운영해 누구나 쉽게 NCS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며, NCS Q&A센터를 운영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 NCS의 현장 착근을 위한

### 내실화 지원

고용노동부는 올해 NCS 기반의 현장 중심 교육훈련체제를 정착시킨다. 2016년까지 학교용 NCS 학습모듈 교재 개발 등 NCS를 적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사와 강사의 NCS 교육과정 운영역량을 강화하며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지원 등을 통해 NCS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확충한다. 또 일·학습 병행제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으로의 확산을 통해 사회적 파급력을 확대하고 법 제정 등 내실화도 도모한다. G

# 문화 국가 브랜드 개발 한류 문화영토 확대

## 상반기 한류기획단 출범… 콘텐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박길명 | 위클리 공감 기자

'대한민국의 문화영토를 넓혀라.' 정부가 올해 집중 추진할 '문화융성' 정책 과제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월 22일 '국민행복'을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로 행복한 삶'이란 비전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문화콘텐츠 창조역량 강화, 생활 속 문화 확산 등 3대 전략과 주요 실천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올해 주요 정책 과제의 목표는 이렇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시설 수 1800개, 생활체육 참여율 56.6%, 문화 기반시설 2520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280만 명, 문화 복지 수혜자 155만 명, 콘텐츠산업 매출액 98조9000억 원, 콘텐츠산업 수출액 58억4000만 달러, 국내 관광시장 규모 26조 원, 외래 관광객 1550만 명 달성 등이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류를 통한 문화영토 확대' 계획이다. 여기서 핵심인 '한류 3.0' 정책은 '한류 위기론'에서 출발한다. 한류 3.0은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문화 전반으로 한류의 지평을 넓혀 소비자가 선택적 콘텐츠를 즐기고 생활 일부로 느끼는 형태를 말한다. 최근 한류는 중국의 온라인 규제, 일본의 '혐한류' 확산 등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 한류지도 구축
### 유통 플랫폼도 강화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진입 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는 올해 2000억 원 규모의 한·중 발전펀드를 조성해 공동 제작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중국의 방송 규제에 대비해 범정부적 대응과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활용한 사업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동남아시장에 대해선 방송 콘텐츠 현지화 및 'K푸드' 등 소비재 수출과 연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시장에 대해서는 인디음악, 웹툰, 애니메이션 등 유망 분야 진출과 스마트 콘텐츠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중동, 인도 등 신흥시장의 경우 유통망 확보에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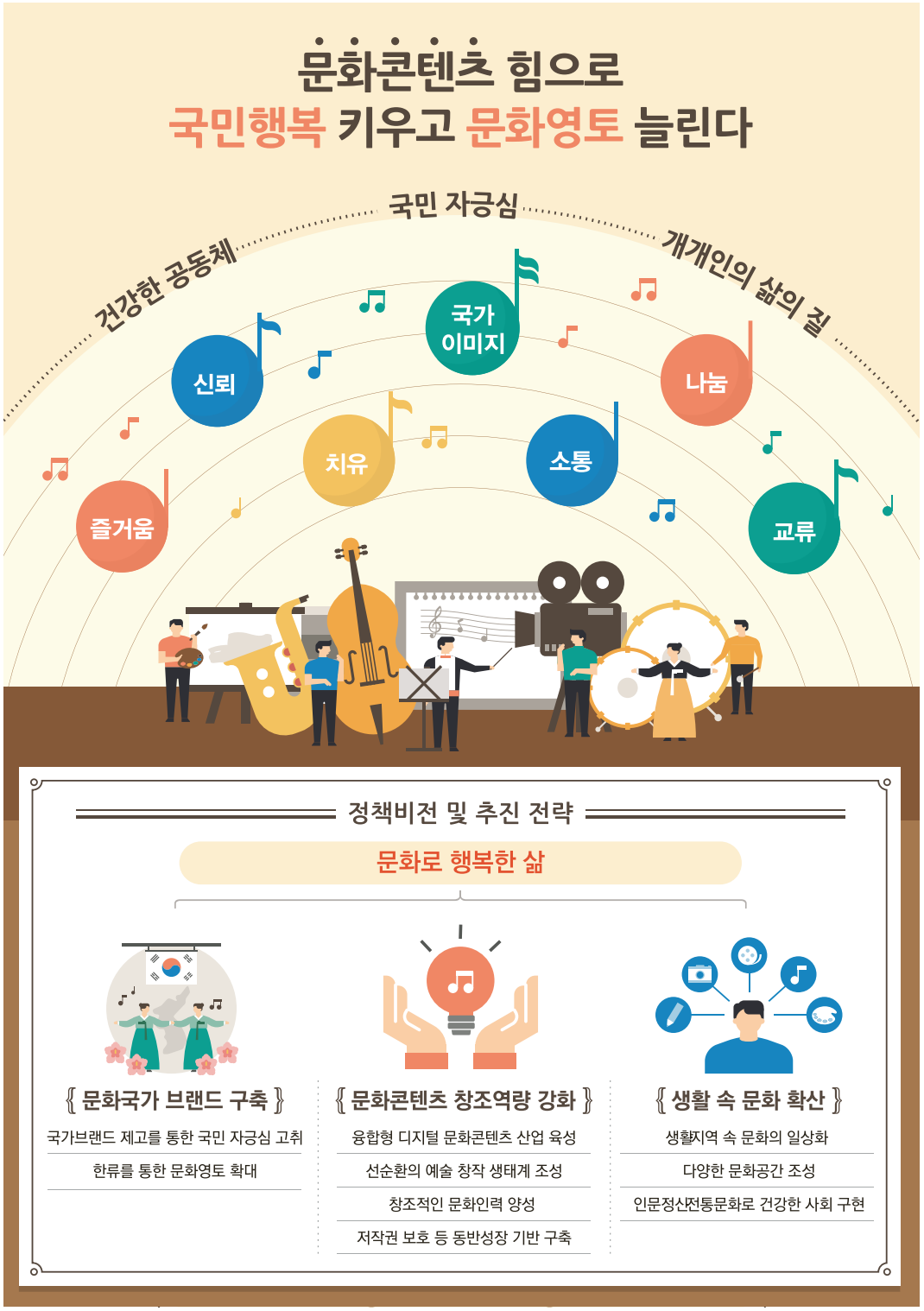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상반기 중에 한류 다변화 정책을 총괄하는 '한류기획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주요 전략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류지도'를 구축하는 등 한류 유통 플랫폼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해외시장에서 한류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저작권센터 등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저작권 침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해외진출 콘텐츠업체로 구성된 해외저작권보호협력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제적인 관광 거점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복합리조트,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중심의 레저스포츠 메가시티,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역 등의 관광 자원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획-제작-유통-확산'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에 이야기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충북 제천에 '스토리클러스터'를 조성(2016년 완공)하며, 지역 고유의 인문자산 이야기를 발굴하는 '지역 스토리랩' 10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모태펀드(2000억 원 조성), 완성 보증, 콘텐츠공제조합 등 다양한 콘텐츠 금융 지원을 통해 콘텐츠 창작과 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작가들의 창작 지원도 강화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하기로 했다. 창작자의 처우 개선에 110억 원(29억 원 증액)을 투입해 3500여 명(2014년 1600명)을 지원한다. 미술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해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순수예술 분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는 서면계약 및 장르별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 시스템 구축,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예술시장 활성화도 꾀한다.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조세 지원 강화와 문화접대비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기업 메세나 활성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에도 중점을 둔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인문학,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예술 등을 융합해 교육받을 수 있는 콘텐츠 융합 아카데미가 개설된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개선해 학력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하며, 국제 큐레이터와 미술품 감정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선 한국형 로잔스쿨(세계 유수의 호텔학교)을 통해 우수 호텔인력을 육성하고 카지노산업 종사자 등록제를 도입한다.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역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연예기획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제'가 본격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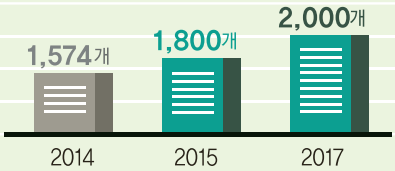
영화산업에선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한 '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영화 시나리오 기획·개발, 방송작가, 만화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도 확산할 방침이다.

게임 규제에도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물 등급 분류제도를 개선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저작권 존중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체험교실(300곳),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8650회) 등을 통해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나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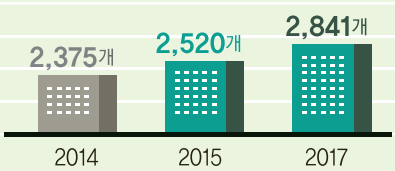
## '문화로 행복한 삶' 기대 효과

### 문화향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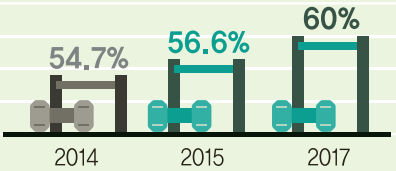
#### 문화가 있는 날 참여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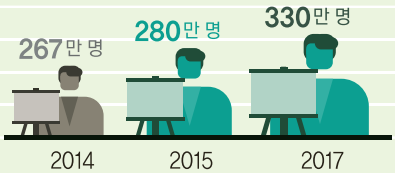

#### 문화 기반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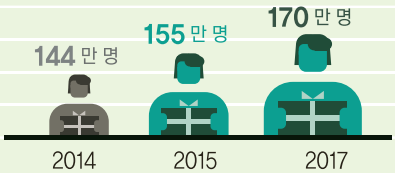

#### 생활체육 참여율




####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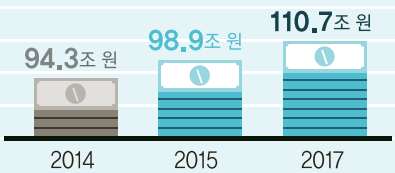

#### 문화 누리카드 수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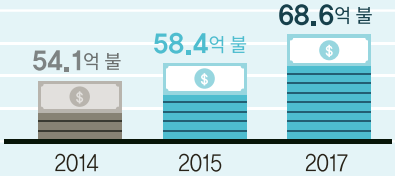



###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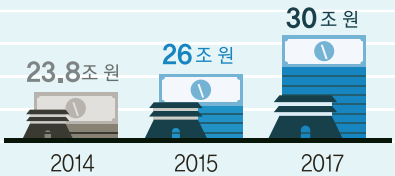
#### 콘텐츠산업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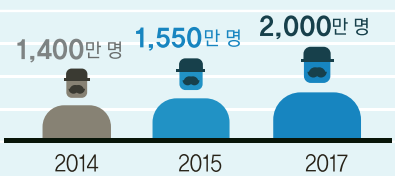

#### 콘텐츠산업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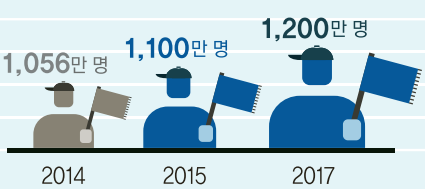

#### 국내관광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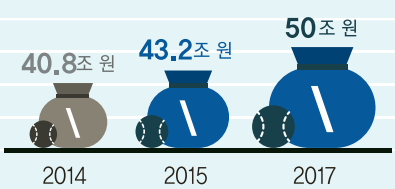

#### 외래 관광객




#### 프로스포츠 관람객




#### 스포츠산업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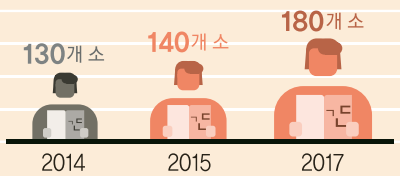



### 한국문화원·세종학당

#### 한국 문화원 수




#### 세종학당 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와 생활 속 문화 확산정책을 중점 시행하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관광·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

로 했다.

이 밖에 '저작권보호원' 설립을 추진해 이원화돼 있던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저작권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저작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시행된 '문화가 있는 날'이 대폭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문화시설의 입장료 할인과 야간 연장 개방 등을 통해 기존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해왔다.

이에 올해는 문화시설 할인과 함께 연간 1000여 차례 기획행사를 열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상공간에서의 행사를 넘어 기업체, 산업단지, 학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점, 공연장 등 지역의 문화시설과 연계해 해당 지역 전체가 작은 축제를 여는 '문화가 있는 날 존(Zone)'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이 직접 만들고 나누는 창조적 문화생활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생활문화센터를 추가로 조성(30곳)하고 운용 활성화를 위해 135억 원을 지원한다. 문화 동호회 프로그램에도 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등록 미술관이 없는 지역에는 작은미술관 5곳, 미술마을 6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 거점도 32곳에서 35곳으로 늘린다.

문화시민 양성 방안으로 장르별 문예강사 파견을 전국 초·중·고교 8216곳, 전체 71%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역주민 대상 생활예술교실 48곳, 직장 내 문화예술 동호회 40곳을 지원해 청·장년층의 문화 활동 참여를 확대한다.

노인복지관 202곳에 대해선 연극, 합창 등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통합문화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대상(기초·차상위계층)을 지난해보다 7.6% 늘려 155만 명 이상이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 국가브랜드 강화에 총력
### 자긍심 높이고 신뢰감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브랜드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유·무형 문화유산, 정신문화 등을 활용한 국가브랜드 및 통합 국가·정부 상징체계를 연내에 개발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신뢰감을 주는 정부 이미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2015 밀라노엑스포'(5월 1일~10월 31일) 기간에 한식을 중점 소개하는 한국관을 운영해 국가브랜드 홍보에 나선다. 이와 함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15~2016년 한·프랑스 상호 교류협력의 해, 한·중 관광의 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태권도 세계화 등을 계기로 삼아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브랜드 순위를 2014년 27위에서 2015년 이후 20위권 내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올해 외래 관광객 1550만 명을 돌파하고 나아가 2000만 명 시대를 열어 유·무형의 파급 효과를 창출해나갈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조성해 국민 체력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의 야간·주말 개방과 스포츠지도자 배치·강습을 통한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결성(340곳), 시설·프로그램·지도자를 연계한 종합형 스포츠클럽 확대(29곳) 등으로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생활체육 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통합 제공하는 '생활체육 포털'을 구축하고, 체력인증센터를 21곳에서 26곳으로 늘려 10만50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문정신과 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도 확대된다. 인문강좌와 지역 현장체험을 결합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과 박물관 수를 4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참여자의 호평을 받은 유아 대상의 동화구연 프로그램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2100명), '병영독서'(150개 부대) 등은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이 밖에 영원(英園 : 영친왕 이은과 부인 이방자의 무덤)과 회인원(懷仁園 : 영친왕의 2남 이구의 무덤)을 5월부터 시범 공개하고 아리랑 대축제 개최, 아리랑의 날 제정 등을 추진한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류와 생활 속 문화 확산정책을 중점 시행하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관광·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인문정신과 전통문화 구현 등에도 힘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G

# 소득·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일상에서 복지혜택 확대

## 맞벌이 부부 보육지원 강화… 4대 중증질환 보험 적용 늘려

김진수 | 위클리 공감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 수정돼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 급여 등의 지원이 가능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어린이집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한 아동학대 교사와 원장의 영구 퇴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보육체계 전반도 개편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5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 장관은 "올해에도 국민 한 분, 한 분이 일상생활에서 복지 혜택을 더 크게 누려 국민행복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전 생(生)에 걸친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안정'을 3가지 핵심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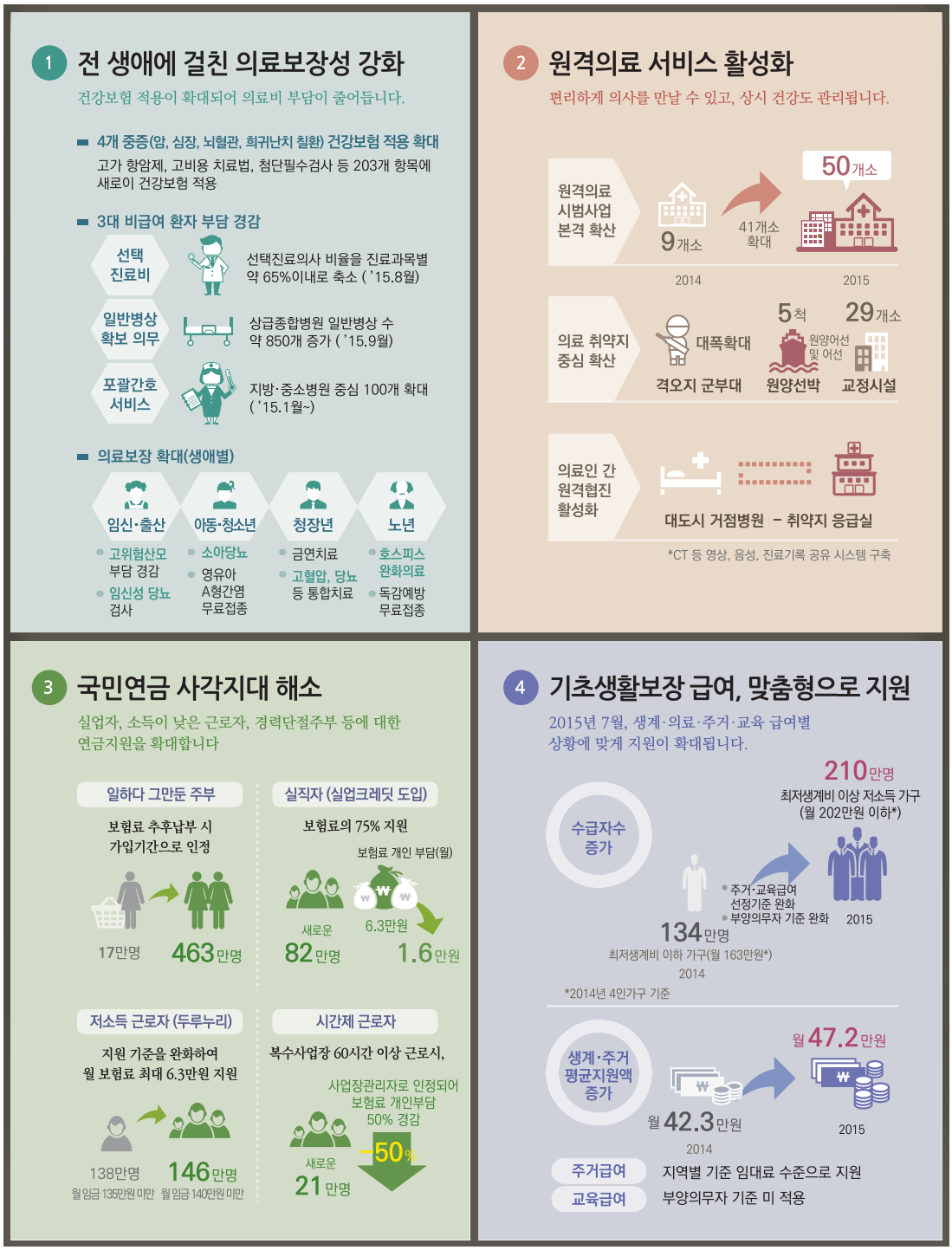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급여를 현행 포괄급여(최저생계비 기준 통합급여) 방식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욕구별 개별급여(맞춤형) 방식으로 변경한다. 개별급여로 변경되면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책정되므로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는 현재의 134만 명보다 크게 증가한 21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자가 받는 가구당 월평균 급여액도 42만3000원에서 47만2000원으로 5만 원 가까이 늘어난다.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는 7월 2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수급자에겐 별도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개별급여가 책정·지급된다. 신규 희망자를 위한 접수는 6월부터 시작된다.

###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신청자격을 현행 장애등급 1, 2급에서 1~3급으로 확대해 6월부터 적용한다. 하반기부터는 단전·단수된 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등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정보도 전산 시스템으로 공유한다. 이를 통해 일선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위기가구를 확인하고 직접 가정을 방문해 긴급복지 또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할 방침이다. 생활관리사가 홀몸노인 가정을 주 1회 방문하고 주 2, 3회 전화로 안부를 묻고 안전을 확인하는 '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을 올해 39만 명으로까지 확대하고 민간기업과 어르신 간 후원 또는 결연을 통한 돌봄 기능도 강화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대책도 추진한다. 먼저 아동학대가 1회만 발생해도 어린이집 폐쇄를 가능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처벌을 강화한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할 경우 관련 동영상을 열람·제공하도록 제도화한다.

보육교사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난이도를 높이도록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인성과 적성검사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보조교사를 늘리고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사 근무 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육 서비스가 맞벌이 부부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게 보육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도 추진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84.8%까지 경감하고, 방사선 치료와 암환자 유전자 검사 등 비급여 200여 개 항목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 전 생에 '건강한 삶 보장'

3대 비급여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의 15~50%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8월부터 축소한다. 현재는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65%만 둘 수 있게 줄인다. 아울러 현재 43개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게 돼 있으나 9월부터는 이를 70% 이상으로 강화한다. 지난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28개 병원에서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엔 서울을 제외한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10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연령대별로 필수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 조기 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선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10% 내외로 낮춘다. 5월부터 국가무료접종 항목에 A형 간염(12~36개월 대상)이 추가돼 1~3세 영·유아 약 9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는 65세 이

상 독감 무료접종은 10월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가능해진다. 특히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올해 내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하반기 중에 적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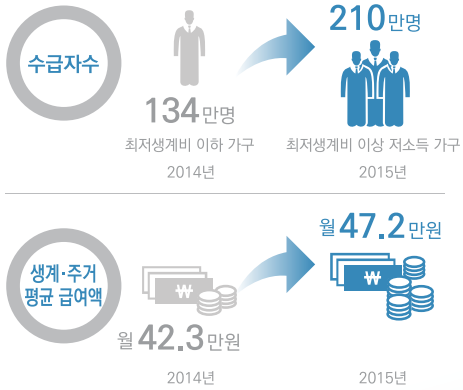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환자 중심의 상시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지난해 9개소에서 올해는 50개소로 확대한다. 3월부터는 위성통신을 이용해 원양 선박 5척과 병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현재 2개 군부대에서 실시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고, 원격진료를 시행 중인 교정시설을 현재의 27개소에서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해 29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가능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원격협진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농어촌 취약지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 대도시 거점병원의 전문의에게 휴대전화로 의뢰하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환자 기록을 함께 보면서 환자 진단, 처치, 이송 등의 서비스를 협진을 통해 제공하는 응급환자 원격협진 시스템을 4월부터 5개 지역에서 시작하며 건강보험 수가도 적용한다.

예방적 건강 증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맞춤형 금연 지원,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관리 등 질병 예방에 초점을 둔 건강 증진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군인, 대학생,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실시하며, 2월부터는 보건소뿐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금연클리닉에 등록하

## 사회안전망 확충

### 7월,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지급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반영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 어려운 이웃, 보호 강화

○ 찾아가는 복지

- '복지로' 복지 포털과 '129 콜센터' 활성화
- 통·이장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 위기가구 의심 시 직접 가정 방문, 지원
  단전·단수 가구,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

○ 빈틈없는 지원

- 복지와 일자리 통합 제공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설치 확대 10개 → 31개
- 화재 등 일시적 위기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 2배 확대
- 공동모금회, 종교단체 등 민간연계

### 복지 재정 낭비 방지

○ 복지 재정 누수 방지

- '복지로' 포털 익명 신고 신설
- 사망 시 시스템으로 급여 자동 중지
  사망사실 공유 13개 → 17개 기관연계
- 현장조사 확대

누수방지 강화 5,000억원이상 절감 추진

○ 유사·중복사업 통합·정비

| 중앙사업 (360개) | 정비방향 | 정비안 마련 (2~4월) | 적용 (5~12월) |
|---|---|---|---|
| | 사업 통폐합 | 실태분석 및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 부처별 실행 및 '16년 예산 반영 |
| | 전달체계 통합 | | |
| | 서비스연계 | | |

자료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 수정돼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 급여 등의 지원이 가능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어린이집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한 아동학대 교사와 원장의 영구 퇴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보육체계 전반도 개편된다.*

면 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패치, 껌, 약제 등의 금연보조제 투약 비용을 지원한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해 간암 고위험군(B·C형 간염보균자 등)의 경우 건강검진을 연 1회에서 2회(6개월)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는 현재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또 보건의료의 세계 진출을 가속화해 올해 안에 신규 일자리 3만8000개, 부가가치 2조 원, 수출 8조6000억 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국가별 진출 전략을 상반기 내에 수립해 해당국 수요에 맞게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국적 제약기업의 임상실험 유치를 위해 '글로벌 임상혁신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들어오는 병원에 대해선 임상실험과 의료기기 창업 등을 지원해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와 해외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안정'

복지부는 활기찬 노년생활 보장을 위해 틀니·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등 어르신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틀니와 임플란트는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지원(본인 부담금 50%)하고 있으나 7월부터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70~74세 어르신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치매예방 강화-치매치료 전문시설 확충-치매가족 간병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치매 치료대책도 추진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등을 통해 '치매 예방수칙 3·3·3'과 치매 예방운동법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요양시설 내에 치매전담실을 운영해 치매 환자를 위한 별도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주야간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치매 예방수칙 3·3·3'은 3가지 즐길 것[3권(勸) :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생선과 채소 고루 먹기, 부지런히 읽고 쓰기], 3가지 금할 것[3금(禁) : 술 적게 마시기, 담배 피우지 않기,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3가지 챙길 것[3행(行) : 정기적으로 검진 받기, 가족·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매년 치매 조기검진 받기]을 말한다.

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옛 노인 일자리사업)을 31만 개에서 33만8000개까지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도 늘리는 등 어르신의 지혜와 경륜을 활용하기 위한 사회참여 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선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되더라도 매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재조사해 새롭게 수급자격이 되는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한다.

기금 500조 원 시대에 걸맞은 관리·운용체계를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도 높인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서 과거 납부 경력이 있는 주부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에라도 일괄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르면 2월 중에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가 어려웠던 경력단절 주부 등 446만 명이 새롭게 수급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더라도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본인이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임금 135만 원 미만 소득자에 한해 연금 납부 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월 140만 원 미만까지 적용기준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또한 시간제 근로자가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되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을 채우면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G

# 안전한 환경, 미래가치 창출 미세먼지 경보제 확대

##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유엔 제출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발표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 문제 해결 ▶환경 불편을 덜어주는 '찾아가는 환경서비스' 시행 ▶환경 가치를 지닌 새로운 산업육성 기회 창출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 문제(미세먼지, 녹조, 유해물질, 악취)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첫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는 2012년 5회에서 2014년 23회로 크게 증가하는 등 국민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의 미세먼지 경보제를 통일된 기준으로 시행하고 고농도(PM10 120, PM2.5 65㎍/㎥ 이상)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차량 부제운행, 도로 물청소 등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5만4000대에 대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노후 휘발유차 촉매장치 교체를 지원한다.

둘째, '윗물 살리기'는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의 본류 유입을 막기 위한 사업이다. 조류발생경보제를 4대강 상수원 이용 구간으로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수상활동 안전 여부를 알려주는 친수경보제를 도입한다. 윗물 살리기 정책의 효과와 더불어 824억 원을 들여 전국 124만 명에게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방충제와 섬유유연제, 방향제 등 15종의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성분에 대해서는 올해 4월까지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넷째, 서울 종로구와 은평구는 구도심 지역 하수 악취 개선 시범사업지로 채택돼 올 3월부터 12월까지 관리를 받는다. 악취 발생 유형별 개선 방안을 담은 설명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폐기물 수거차량을 밀폐하여 악취를 줄이고 날림을 방지한다.

### 찾아가는 환경서비스 본격 시행

환경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서비스도 본격 시행된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는 작년 수거 실적이 2.4배 증가했고 국민 만족도 99.7%로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형 가전제품뿐 아니라 중형(선풍기, 청소기 등) 제품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재활용 동네마당'도 재활용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단독주택과 농어촌지역의 '문전 수거' 재활용 방식을 '거점 수거' 방식으로 전환한다. 2016년까지 2개 권역 109개소의 거점시설이 시범 설치될 예정이다.

사회문제로 불거진 층간소음 해결에도 정부가 나선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대상을 지난해 3000가구에서 올해 5000가구로 확대하고 현장을 찾아가 상담과 측정을 통해 해결한다. 전국 1만5000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에 대해서는 중금속, 석면, 기생충 알 등을 파악하는 환경 안전진단을 확대하고, 전국 2248개 학교에는 석면, 라돈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생활기상 서비스를 확대해 한파가 닥칠 때도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호우, 폭염, 황사, 대설 등 특·경보 문자서비스 대상에 한파를 추가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




자료 : 환경부

진 발생 시 경보를 현행 2분에서 50초 이내에 발령토록 하고 2020년에는 10초 이내까지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가 내놓은 정책의 핵심은 미래 세대까지 환경복지를 온전히 누리는 지속가능사회 구현에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규제 개혁, 새로운 산업 육성 기회 창출이 그 방안이다.

온실가스 감축 내실화를 위해서 배출권 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대해서는 금융을 지원하고 절감된 온실가스는 배출권으로 회수해 시장 안정화 물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기차를 3000대까지 보급하기 위해 보급차종을 전기택시,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등으로 다변화한다. 하이브리드차($CO_2$ 97g/㎞ 이하)를 구매하면 100만 원을 직접 보조(3만 대)하거나 최대 31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 환경오염시설 제한지역 실효성 원천 재검토

환경 규제는 환경과 기업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다. 분산·중복된 허가를 통합·간소화하는 법률을 올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6개 법령, 9개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 현행 환경관리방식을 1개 통합허가 관리로 바꾼다는 것. 제도 도입시 연간 3300억 원의 환경설비 투자증대와 10년간 655억 원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시장 개척에도 본격 착수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과의 협업을 통해 환경 개선 수요가 많은 중국의 10개 성·시에 9대 유망 환경기술(자동차 매연 저감, 토양 복원 등)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물산업 허브를 목표로 조성되는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도 올해 착수한다. 물산업 클러스터는 오는 4월 세계 물포럼 개최를 앞둔 대구에 들어서게 된다. 이 안에 200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물융합 연구동, 비즈니스센터, 실증화 단지와 지원시설 등을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생태관광 육성 및 폐자원·에너지 순환 이용을 통해 새로운 환경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은 국민행복과 삶의 질의 원천"이라고 강조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환경정책으로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G

# 일·가정 양립 지원 양성 동반 성장 가속화

##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운영

이혜민 | 위클리 공감 기자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더욱 가속화한다.' 여성가족부는 1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 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균형 있는 가족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 청소년이 꿈과 끼를 펼쳐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균형 있는 가족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체계인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곳은 맞벌이 가정이 겪고 있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단체로, 특화형 센터를 시범 운영해 기존의 주간·주중 전업맘 위주의 서비스를 야간·주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기존의 프로그램을 보완해 주말 가족 프로그램, 아빠 육아학교, 찾아가는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확충된다.

또한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한다. 즉, 아이돌봄 서비스 가운데 영아종일제 서비스 대기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이돌보미를 영아종일제에 우선 배치한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목적에서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대한다. 이는 이웃 간 상부상조로 자녀를 돌보는 지역 중심의 제도로, 2014년 84개소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00개소, 2017년에는 23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한부모가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이혼·미혼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본격 출범한다. 이로써 이혼·미혼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소송, 채권 추심 등 원스톱 종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가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서비스는 연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연간 84만 원에서 연간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업 등과 협력해 한부모가정이 머물 수 있는 임대주택을 101가구에서 175가구로 늘려 마련한다.

한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돕는 정책도 추진한다. 중앙부처에서는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과 다문화자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부처별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결혼이민자 집중 거주지역 고용센터에는 결혼이민자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 인재가 각 부처 해외 교류사업 등 글로벌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도 확대해 종전 6개소에 달하던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을 190개소로 확대한다. 지역 차원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늘린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외국인·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사회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도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작업도 본격화한다.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범국민운동'을 민간단체, 4대 종단 등과 협력해 혼례교육, 서명운동 등을 통해 진행한다. 작은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예식장 정보와 무료 주례, 저렴한 웨딩비용 정보도 제공한다.

# 균형있는 가족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내실화
  -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
    * 은행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 맞춤형 가족친화 컨설팅
    * 기업별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제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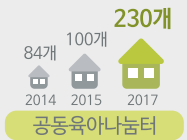



###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시범운영

- 상담: 직장과 가정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 야간 주말 상담
- 정보: 일·가정양립, 육아 관련 정보 제공
- 교육: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자녀교육 및 아버지 교육
- 커뮤니티: 직장맘·전업맘 간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

###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 경감

-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 영아종일제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마련
  - 아이돌보미 영아종일제 우선 배치
-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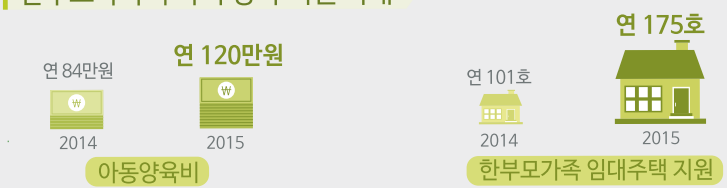



##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양육비 이행 원스톱 서비스"시행




###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 확대




자료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출산휴가 후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자동육아휴직'을 확산하고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가족친화 인증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복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복귀 지원을 위한 육아 정보, 복직 전후 준비사항, 일·가정 양립 성공 사례 및 노하우 등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 표준모델을 보급한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도 돕는다. 이들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기존 14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고, 지역의 산업 수요를 반영해 1만6000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6000명에 대한 직무 적응을 위한 인턴십을 진행한다. 기존에 이 센터에서 30대 고학력 여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농어촌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농어촌형을 특화해 보완한다.

또한 여성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지역 거점 교육을 기존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전문직·지역 여성인재 등 교육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공공부문 여성의 관리자 비율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소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2017년까지 40%로 높여 검증된 여성인재 DB를 10만 명으로 확대한다.

### 여성인재 양성

### 맞춤형 교육 강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을 토대로 여성만이 아닌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뀐다.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하고, 중앙행정기관에만 두던 여성정책책임관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변경해 시·도지역까지 확대한다. 모든 정책에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확대해 양성 모두에게 국가 정책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모성권뿐 아니라 부성권도 보장한다. 이로써 공무원 육아휴직기간을 종전에 남자 1년, 여성 3년으로 하던 것을 남녀 모두 3년으로 개선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원년의 해로 정해 지원센터를 가동한다. 지원센터를 54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해 진로 설정을 위한 상담부터 학업 복귀를 위한 교육, 취업을 위한 직업체험, 건강검진 등을 촘촘하게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상담은 물론 검정고시 대비, 자격증 취득과정, 동아리 활동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청소년활동 안전센터' 등을 통해 청소년 활동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안전점검과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G

# 경제 활성화 '골든 타임' 미래로, 희망으로 나아갑시다

**2015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5차례에 걸쳐 마무리됐다. 이번 업무보고는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아 주요 정책 등 국정 목표를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업무계획 수립과 후속 조치 추진을 요청해 조기에 이뤄졌다. 비슷한 부처를 병렬적으로 묶어 보고받지 않고 정책 현안 및 이슈 중심으로 여러 관계부처를 연계해 협업을 강조한 합동보고 형식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17부 5처 5위원회 1청 등 28개 기관 업무보고에 나타난 박 대통령의 국정 메시지를 주제별로 요약했다.**

정리 김진수 | 위클리 공감 기자

##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I

**기초가 튼튼한 경제 & 내수·수출 균형경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월 13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년 차인 지난해에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개혁이 시동을 거는 데 주력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방만경영 개선 대상기관 대부분이 목표액을 이행했고 부채 감축, 비리 근절 개혁도 목표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습니다. 2년 연속 무역 트리플 크라운과 50만 명 일자리 증가 등의 성과도 있었고, 주택시장도 거래량이 2006년 이후 8년 만에 100만 건을 넘는 등 점차 정상화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

3개년 계획의 핵심은 계획 자체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면,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더 큰 어려움도 실천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의 믿음을, 국민의 동참을 이끌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 | 청년 취업난 해소 |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능력 중심 채용제도를 정착시키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올해 공공기관부터 가급적 많은 인원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 | 혁신 기반의 확립 |

올해가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성과 달성에 매진해야 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서 정부와 정치권 모두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또 노사정 대타협 등 구조개혁의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 | 공공기관 개혁 |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또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 창조금융 정착

금융부문에서는 보신주의 행태와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낡은 관행과 규제체계를 걷어내는 해가 돼야 하겠습니다. 창조금융이 금융 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려서 실물 부문에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더욱 능동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만 하는 필수 과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전략으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겠습니다.

### 규제개혁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입니다. 지난해에 약 3000건의 규제를 개선했는데 올해는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는 우선적으로 철폐해야 하겠습니다.

### FTA 활용

FTA(자유무역협정)가 농업에 실질적인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을 농민들에게 심어주기 바랍니다. 세계 3위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새로운 판로를 찾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구제역, 쌀 관세화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 육성

농수산업에서도 얼마든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6차 산업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농업과 해양수산업은 올해를 미래성장산업화를 본격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아서 이 부분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냈으면 합니다.

##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Ⅱ

**역동적인 혁신경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1월 15일)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내수·수출 균형경제가 기초 체력을 다지고 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라면, 역동적 혁신경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역동적 혁신경제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 주력산업 혁신

지금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과 엔저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공세로 우리 주력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을 극복하고 주력산업이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을 보급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에서도 소프트파워를 강화해야 합니다.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역동적 혁신경제의 핵심은 역시 창조경제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설, 기술금융 확충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한 결과 점차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계곡'을 넘어선 창업기업들이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신설 법인 수가 8만 개를 넘어섰고, 벤처기업 수가 3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벤처투자펀드 조성액이 재작년에 비해서 75%가 늘어나는 등 창업 환경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 창업기업 성장 사다리

창업기업들이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우리의 정책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창업과 재도전에 나선 기업들에게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영원한 족쇄가 되지 않도록 연대보증 면제, 재창업 지원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특화형 창조경제 구현의 허브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적 자원이라든가 그 지역의 주력산업, 기술 개발, 시장 특성, 이런 것들이 각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창조경제도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의 기업과 대학·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심이 될 때 창조경제는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미래 대비 투자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분야가 문화콘텐츠산업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문화와 기술 융합의 결정체이고, 우리의 문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블루오션을 열 수가 있습니다. 방송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낡은 규제와 칸막이들을 혁파하고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사업 지원 등 콘텐츠 제작 환경도 개선을 해서 방송 콘텐츠의 세계시장 진출을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 IT기업 규제혁신

핀테크 기업의 진입을 막거나 새로운 IT(정보기술) 적용을 막는 규제가 없는지 규제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혁신해야 합니다. 현재 기업의 진입을 막는 규제나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자 해서 규제단두대까지 등장했는데, 핀테크 같은 것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 늦었습니다.

## ▶ 통일 준비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1월 19일)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통일이라는 것이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하기에 따라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을 차근차근 이행해가야 할 때입니다."

### 국제사회 공감대

통일이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알리고 구체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발전에 우리의 통일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더욱 연구해서 각 국가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득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통해서 신뢰와 협력의 동북아 공동체를 이루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통일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선순환적 경제 도약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야 합니다.

### 이산가족 상봉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령의 남북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부터 풀어드리는 겁니다.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정치와 이념을 떠나 기본권 보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 남북 교류협력과 대화

남북한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과 대화를 추진해주기를 바랍니다. 통일은 크게 보면 민족적 과제이지만 동시에 남북한 주민들의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벤트성 사업을 통한 양적 확대에 만족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남북 주민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의 질적 향상을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 국민안전 보장

'나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4대 사회악을 비롯해 강력범죄, 안전사고에 단호하게 대처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민행복을 얘기할 때 불안에 떨고 범죄로부터 내가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 할 때, 다른 어떤 것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 새로운 산업 창출

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나노 등 유망 분야의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령화와 기후변화, 재난·재해 등을 위기로만 보는 사람들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기술을 적극 개발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만이 발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튼튼한 안보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듯이 통일한국이라는 큰 집을 짓는 데에도 안보라는 기본 토대가 튼튼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 연합 대응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우리 군의 국방 역량을 확충해나가야 하겠습니다.

### 능동적 외교

통일은 확고한 비전과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외교가 뒷받침될 때 가능해집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노력은 평화통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통일 당사국으로서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통일 과정을 우리가 주도해나가야 하는 만큼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배법을 모색해가면서 북한의 전략적 핵 포기 결단을 촉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 ▶ 국가혁신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1월 21일)

"우리 앞에 놓인 국가혁신 과제는 경제혁신과 국민행복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사실은 혁신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위기를 극복했을 때 반드시 더 큰 도약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 | 공직사회 혁신 |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또 사회지도층의 비리가 계속되는 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또 국민적 응집력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합니다.



### | 국민안전 대진단 |

올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안전 대진단, 말하자면 안전 분야에서 우리 국가가 종합검진을 대대적으로 받는 건데 안전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관련 기술 개발, 산업 육성, 그것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원자력 안전 |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여전히 큰데, 원전 관리에서 부정부패 요소를 철저하게 뿌리 뽑아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 사이버 공격 때와 같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대비태세도 강화해나가야 하겠습니다.

## ▶ 국민행복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1월 22일)

"국민행복은 우리 국정 운영의 최종 목표이고,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야만,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책 준비 과정에서부터 수립·실행·평가받는 체계까지 그 전 과정에 협업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국민행복과 밀착된 부분입니다."



### | 의료급여 강화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정책도 당초 계획대로 충실하게 시행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려야 하겠습니다. 훌륭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 | 국민 문화 향유 확충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를 통한 창조경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준비해주기를 바랍니다.



### | 일·가정 양립 확충 |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시행하면서 여성의 입장에서 정말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여성의 입장에서 액수가 크고 많고는 둘째로 치고, 정말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 교육혁신 |

교육이야말로 올해 4대 부문 개혁 가운데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실을 행복 공간으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창의교육의 골간인 자유학기제가 지금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하게 되는 만큼 이런 성공 사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체험 인프라 확충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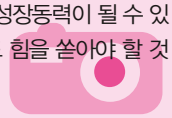


### |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 |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게 되는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발 능력이 없는 분들은 국가가 보호해드려야 되겠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통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런 방향이 이 정부 고용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 관광산업 진흥 |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관광과 문화산업 발전의 도약대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관광산업 발전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 | 생활환경 개선 |

국민행복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녹조, 화학물질과 같은 생활 주변의 환경 문제로 국민들 걱정이 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G

# 거센 파도는 밀려오고 세상 시름은 쓸려가고



글·사진 양영훈 | 여행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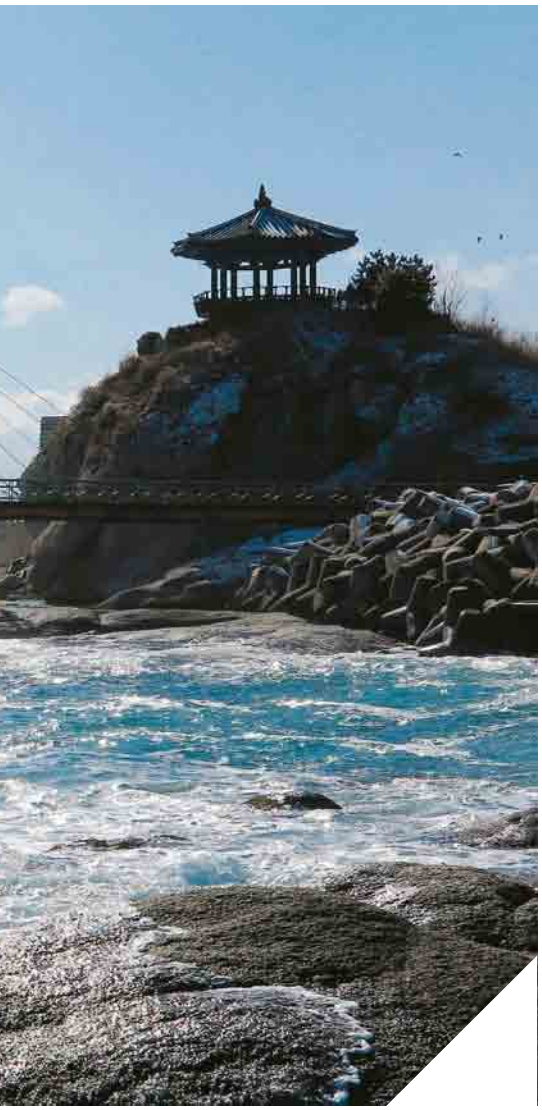
## 속초 영금정해안

추위는 여행을 준비하는 순간 멀리 달아난다. 움츠러든 어깨를 펴고 풍광을 누릴 일만 남았다. 케이블카를 타고 눈 덮인 설악산 권금성에 오르면 속초 시가지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창망한 동해, 그 바다와 맞닿은 영랑호와 청초호, 두 호수 사이에 들어선 속초 시가지의 전경이 이국적 정취를 물씬 풍긴다.

속초등대와 영금정도 아스라이 보인다. 한달음에 달려가서 안기고 싶을 만큼 아름답고 낭만적인 풍경이다. 속초시 동명동의 영금정해안에는 넓고 큰 갯바위가 즐비하다. 큰 파도가 갯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거문고 켜는 듯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영금정(靈琴亭)이라는 지명이 붙었다.

질풍노도(疾風怒濤)의 겨울 바다를 보고 싶다면 영금정해안을 지나칠 수 없다. 풍랑주의보가 자주 발효되는 겨울철에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위력적인 파도가 쉼 없이 밀려든다. 갯바위를 삼킬 듯한 기세로 밀려드는 파도는 약간의 공포심과 함께 짜릿한 전율, 가슴 뻥 뚫리는 상쾌함을 동시에 안겨준다.

영금정해안의 아침 해는 혹한도 잊게 할 만큼 뜨거운 감동을 사람들에게 안겨준다. 갯바위 끝에는 해돋이를 감상하기에 좋은 정자도 있다. 속초 8경 중 하나인 속초등대도 영금정해안의 작은 동산 위





▲ 형형색색의 꽃문살이 아름다운 설악산 신흥사 극락보전.
◀ 속초 영금정해안의 정자.

에 올라앉았다. 등대 전망대에 오르면 동명항과 속초항, 속초 시가지와 청초호, 설악산 준봉 등이 한눈에 조망된다. 영금정 근처에는 동명항이 있다. 싱싱한 자연산 활어회를 맛보려는 사람들로 늘 북새통을 이루는 어항이다.

## 불끈 치솟는 아침 해 가슴 뜨거운 감동

속초에서 동명항과 영금정 못지않게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는 아바이마을이다. 청초호 동쪽 바닷가의 길쭉한 모래톱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6·25전쟁 와중의 1·4후퇴 때 남쪽으로 내려온 함경도 출신 피난민들에 의해 처음 생겨났다. 그로부터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마을 풍경은 1960~70년대에서 멈춘 듯하다. 낮은 슬래브 건물들이 여전히 빼곡하고, '갯배'에 몸을 실은 사람들이 줄을 당겨 청초호 하구의 조롱목을 건너는 광경도 그대로다.

사실 속초를 이야기하자면 설악산을 빼놓을 수가 없다. 지리산, 한라산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으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눈 내린 겨울날의 설악산은 세계 어느 산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설경이 아름답다. 속초의 설악동 소공원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만 올라도 겨울철에 더 매력적인 설악산의 진경(眞境)을 감상할 수 있다. 사시사철 끊임없이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분주한 신흥사도 눈 내린 겨울날에는 산사다운 적요함이 느껴진다. 긴 활주가 떠받치는 극락보전의 처마 아래에서 바라보는 설악산 준봉들의 빼어난 자태도 인상적이다. 눈 내린 날의 설악산 어딜 가나 인간세상이 아니다.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이다. G

### 여행 정보

**숙박**

속초는 영동 최고의 관광도시답게 다양한 숙박업소가 많다. 속초해변의 파도소리펜션(033-637-5464)과 해촌블랑빌(033-638-5648), 영금정해안의 메모리즈모텔(033-636-9415), 중앙시장 앞의 이스턴관광호텔(033-638-8640), 대포항 옆의 마레몬스호텔(033-630-7000) 등이 권할 만하다. 설악산 초입에는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설악동자동차야영장(033-636-1262)이 있다.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고, 전기 사용이 가능한 야영 사이트도 많다.

**맛집**

중앙동의 갯배 선착장 부근에 위치한 진양횟집(033-635-9999)은 직접 만든 오징어순대(사진) 맛이 일품이다. 영금정해안 근처의 이모네집(033-637-6900)은 생선찜이 맛있는 집으로 유명하다. 그 밖에 중앙시장의 감나무집(감자옹심이, 033-633-2306)과 북청닭강정(033-633-0078), 영금정 인근의 사돈집(곰칫국, 033-633-0915)과 대선횟집(생선회, 033-635-3364) 등도 속초의 맛집으로 손꼽힌다.





# 언제나 감동이구나! 동해 수호신 대왕암

해무에 휩싸인 대왕암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광경은 경외감마저 느끼게 한다.

## 경주 봉길해변

경주 시내에서 추령터널을 넘어 감포 바닷가에 이르는 길은 흔히 '감포가도'라 불린다. 산을 넘고 내를 따라가다 바닷가에 닿는 이 길은 '낭만가도'이자 '역사의 길'이기도 하다. 이 길은 추령터널을 벗어나자마자 대종천 물길과 나란히 달린다. 토함산에서 발원한 양북면 일대의 너른 들녘을 가로질러 흐르다가 동해에 합류된다. 고려를 침입한 몽골군이 경주 황룡사의 대종을 배로 옮기다가 물에 빠뜨린 뒤로 대종천으로 불리게 됐다고 한다.

대종천이 바다로 흘러드는 하구 근처에 감은사지(사적 제31호)가 있다. 일부러 높게 다져진 듯한 절터에는 우람한 삼층석탑 2기와 느티나무 고목만 덩그러니 남았다.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 문무왕(626~681)이 직접 명당을 골라 절터를 잡았다고 한다. 문무왕은 동해가 바라보이는 이곳에 절을 세운 뒤 부처님의 법력으로써 나라를 지키고자 했다. 그러나 절이 완공되기도 전에 세상을 떴다. 아들인 신문왕은 부왕의 뜻을 이어받아 즉위 이듬해(682년)에 절을 완공시켰다. 그리고 부왕의 큰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절 이름을 감은사(感恩寺)라고 지었다.

### 용암과 바다가 합작 부채꼴 주상절리

고려 말까지 존속해온 감은사는 언제부턴가 급격히 쇠락하다가 결국 폐찰이 되었다. 오늘날의 감은사지를 지키는 삼층석탑(국보 제112호) 2기는 신라의 석탑 중에서 가장 크고 웅장하다. 게다가 안정감과 상승감, 조형미까지 두루 갖춘 걸작으로 평가된다. 절터 뒤편의 산비탈에 오르면 주변 풍경과 잘 어우러진 삼층석탑의 우람하고도 아름다운 자태가 한눈에 들어온다.

감은사지 입구에서 바다까지 거리는 1km도 안 된다. 대종천이 바다와 만나는 이곳 하구를 신라인들은 '동해구(東海口)'라 불렀다. 대종천 물길이 뱃길로 이용됐던 신라시대에는 서라벌로 통하는 관문이자 전략적 요충지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왜구들이 수시로 출몰해 약탈과 살육, 방화를 일삼던 곳이기도 했다. 여북하면 문무왕이 죽어서도 동해의 용이 되어 왜구의 침략을 막겠다는 유언까지 남겼을까.

동해구의 작은 바위섬인 대왕암은 문무대왕의 수중릉(사적 제158호)으로 알려져 있다. 그곳과 가장 가까운 땅은 봉길해변이지만, 가장 잘 보이는 곳은 동해구 언덕에 자리 잡은 이견대(사적 제159호)다. 신문왕은 부왕이 동해 호국룡으로 변한 모습을 이곳에서 직접 지켜봤다고 한다. 그리고 용으로부터 만파식적(萬波息笛), 즉 모든 파란을 없애고 세상을 태평하게 만드는 피리도 건네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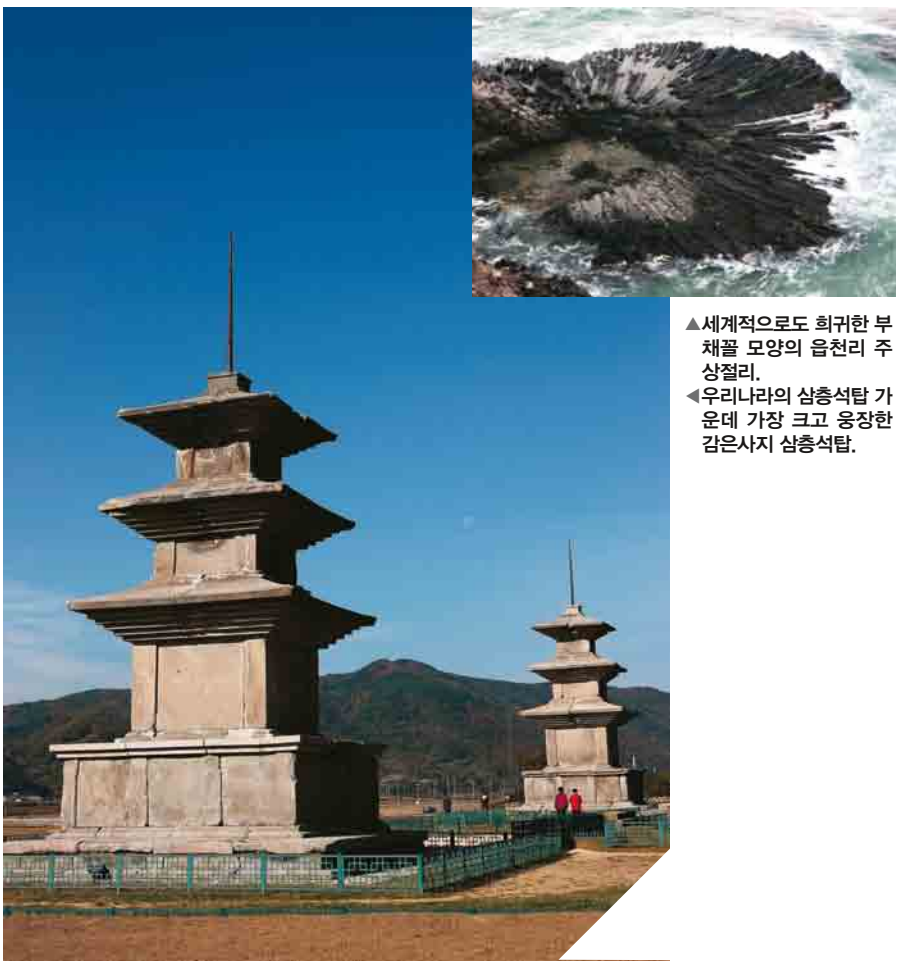
오랫동안 봉길해수욕장으로 불리던 봉길해변은 2011년 여름부터 봉길대왕암해변으로 개명되었다. 대부분의 해변은 피서철만 지나면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지만, 이 해변에는 한겨울에도 적잖은 사람들이 찾는다. 유난히 아름답고도 장엄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해구와 대왕암 주변 바다에는 종종 해무가 짙게 깔린다. 해무에 휩싸인 대왕암 위로 붉은 태양이 불끈 치솟는 광경을 보노라면 신비감과 경외감마저 느껴진다. 무속인들이 밤새도록 기도하거나 굿하는 광경도 이곳 해변만의 색다른 볼거리이다. 게다가 해변 곳곳에 붉은부리갈매기가 떼 지어 내려앉은 모습도 다른 해변에서는 흔치 않다. 특히 서해안에서는 겨울 철새인 이 작은 갈매기를 한두 마리조차 구경하기 어렵다.

봉길대왕암해변에서 남쪽으로 약 7km 떨어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에는 읍천항이 있다. 어항 자체보다도 마을 곳곳에 그려진 벽화가 더 인상적인 곳이다. 인근의 월성원전본부가 2010년부터 추진한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읍천리를 아름다운 벽화마을로 조성했다. 풋풋한 아마추어 화가들의 작품도 적지 않지만, 마을의 특성을 꾸밈없이 잘 살린 벽화들이 많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읍천항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드는 것이 또 있다.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천연기념물 제536호)'이란 이름이 붙은 주상절리가 그것이다. 용암과 바다가 합작해서 만든 자연의 걸작이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부채꼴 주상절리도 있다.

읍천리의 주상절리 해안에는 지금 없어진 해안초소가 있던 자리에 데크 전망대가 설치됐고, 읍천항에서 남쪽 하서항 사이의 1.7㎞쯤 되는 바닷가에는 '파도소리길'이 개설돼 있다. 부채꼴 모양의 주상절리, 데크 전망대, 흔들다리 등을 두루 거쳐 가는 길이다. 워낙 거리가 짧은 데다 힘든 구간이 전혀 없어서 어린아이도 쉽게 걸을 만하다. G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부채꼴 모양의 읍천리 주상절리.
◀우리나라의 삼층석탑 가운데 가장 크고 웅장한 감은사지 삼층석탑.

**여행 정보**

**숙박**

봉길대왕암해변 주변에는 대왕암펜션(054-771-8190)을 비롯해 민박집이 몇 곳 있다. 읍천항 주변에는 바다풍경펜션(054-745-4511), 바다이야기펜션(054-742-2356), 쿠페모텔(054-774-3511), 스위스모텔(054-774-4730), 동해야펜션(010-4533-8190) 등의 숙박업소가 많다. 호텔이나 콘도를 이용하려면 경주 보문관광단지로 가야 된다.

**맛집**



봉길대왕암해변에는 대왕회식당(054-775-9770)을 비롯한 횟집이 여럿 있다. 북쪽으로 약 6km 거리의 감포읍 나정리에 위치한 옥이밥상(054-744-3514 · 사진)은 백반집이다. 회덮밥과 물회, 전복물회가 맛깔스럽다. 읍천항에도 가정횟집(054-744-0445), 읍천횟집(054-744-0767), 가보세횟집(054-774-2231) 등 횟집이 많다.

# 세상을 밝히는 '남다른 사명감'

##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들 뛰어난 성과

**'사명감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이 1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 상은 주요 국가 시책의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들에게 공정한 포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려는 제도다. 제1회 수상자는 훈장(10명), 포장(10명) 대상자를 포함해 모두 84명(대통령 표창 36명, 국무총리 표창 28명)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는 후보로 추천된 611명에 대해 3개월간의 공개검증과 1, 2차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시상식에서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맡은 일을 수행한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전문성을 갖고 헌신한 우수 공무원들의 성과를 연속기획으로 소개한다.**

김용석 | 객원기자

### 옥조근정훈장 수상자
### 성은학교 황윤의 교감

"'쯧쯧, 많이 힘들겠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이런 식으로 대하죠,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이 장애인을 진짜 장애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경기 성남시의 성은학교 황윤의(61) 교감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은학교는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공립 특수기관이다.

황 교감은 장애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 공로로 '대한민국 공무원상' 훈장을 받았다. 그는 특히 중증·복합장애 학생들의 일자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50여 명을 일반 기업에 취업시켜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생산적 복지에 기여했다. 황 교감이 만든 프로그램은 전환교육센터와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다.

"전환교육센터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전환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거점학교는 일반 학교에 장애인 직업 진로과정을 설치한 거예요."

황 교감이 장애인들의 아픔을 남보다 더 이해하게 된 것은 본인이 지체장애인(5급)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끊임없이 '해낼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준 가족 덕분이었다. 한때 좌절 속에서 일어나 시야를 넓혀준 계기가 가족의 격려였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남을 돕는 데 남달랐던 그는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일을 택했다.

황 교감은 그렇게 장애인을 위한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하루 2시간만 자고 죽을 각오로 공부해 4년 전액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장애인은 장애를 갖고 있지만 분명히 다른 강점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비장애인이 지루해할 수 있는 단추 끼우기 같은 일을 장애 학생이 정말 재미있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황 교감은 그런 그들을 인턴사원으로 보냈다. 처음에는 손사래 치던 업체 사장들도 마음을 바꿨다.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취업하는 학생들도 늘어났다.

김형우 기자



요즘 황 교감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단다. 바로 아나운서직에 도전하는 것이다.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장애인들의 일을 세상에 더 알리고 싶어서죠. 아나운서, 꼭 할 거예요. 정말로요."

"아이들이 떡볶이 사달라고 기다린다"며 인터뷰를 마친 황 교감의 말에서 엄마 같은 선생님의 모습이 그려졌다.




지호영 기자

**근정포장 수상자**

## 통계청 하봉채 서기관

"같은 공무원이지만 자료 요청을 하면 얼굴만 쳐다보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황당하다는 거였지요. 그런 까닭에 자료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만 4년 걸렸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예산을 1400억 원 넘게 줄인 사람이 있다. 주인공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장을 수상한 통계청 하봉채(57) 서기관이다.

하 서기관은 5년마다 전수 방문조사로 실시하던 인구주택 총조사를 각 행정기관의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주택 공시가격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통계를 낼 수 있게 했다. 방문조사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이다.

그는 이 일에 꼬박 8년 7개월을 매달렸다. 처음엔 행정자료가 들쭉날쭉한 데다 담당 공무원을 몇 번씩 찾아가 설득해야 했다. 결국 21종의 자료를 모았지만 이 작업만 4년 넘게 걸렸단다.

"가장 어려웠던 건 선례가 없다는 거였어요. 통계학과 교수들도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모델을 찾기로 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일을 배우러 갔죠."

우리와 꼭 맞진 않아도 이스라엘에 모델이 있었다. 다들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하 서기관은 이를 모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결국 그는 북유럽 등지에서 13~20년 걸린 일을 8년이란 짧은 기간에 해냈다.

하지만 힘든 작업이었다. 매일 야근하다시피 해 다른 과에서 하 서기관이 근무하는 곳으로 전출되는 것을 기피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는 일을 밀어붙였다. 공무원 16명이 고생하면 국민 5000만 명이 혜택을 본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랬더니 직원들도 힘을 내더라고요. 뻔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어차피 일하는 것, 국가에 대한 기여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자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 서기관은 1982년 서기보로 사회통계과(지금의 고용통계+복지통계) 공무원이 됐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재미있다. 군 복무를 마치고 길을 걷다 우연히 그의 눈에 띈 것이 통계직 공무원 채용이 처음 실시된다는 공고였다. '1호 통계직 공무원'이 된 것이다.

이번에 하 서기관에게 포장을 안긴 작업 말고도 그가 개선한 일은 많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지만 그만의 방법으로 통계청 데이터베이스를 꾸준히 분석하고 고친 결과다. 바로 하 서기관은 일찌감치 신기술을 활용해 공공 문제를 해결하고 부처 간 장벽을 허무는 정부 3.0을 앞장서 실천해 온 인물이다. G

# 지역의 인문학 갈증 풀어요

## 2015 '인문독서아카데미' 수행기관 공모

이혜민 | 위클리 공감 기자

"지방에서는 유명 인사의 강연을 접하기 어려워요. 몇 회에 걸쳐 진행되는 강좌를 듣는 건 더더욱 힘들고요. 기관에서 회당 강연료로 10만 원 내외를 책정하니 진행하기가 녹록지 않죠. 하지만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진행한 뒤로는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됐어요. 강연을 들으러 오는 분들을 보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충남 서산시 서산시립도서관 박미희 사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주관하는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 공모했다. 지역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오페라를 강의로나마 알리기 위해서다. 박 사서는 강사로 김학민 경희대 연극영화과 교수를 점찍었다. 〈오페라 읽어주는 남자〉란 그의 책을 읽고는 무작정 추진해 성사시켰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강사료를 회당 50만 원씩 지원받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회당 2시간씩 5회에 걸쳐 진행된 오페라 강좌 수강생은 70명. 이들은 오페라에 눈떠 지금도 한 포털사이트 밴드를 통해 김 교수와 관련 정보를 나눈다.

올해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진흥원과 함께 인문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인문독서아카데미'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인문독서아카데미'란 이름으로 인문학, 자연과학 등을 융합한 통섭형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전국 단위의 50명 이상 교육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문화원, 서원 등으로서 기반시설은 물론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전담할 인력이 있어야 한다. 사업기관으로 선정되면 강사료 외에 교재 제작비 등 교육과정 운영비도 지원된다.




인문독서아카데미 수강생들이 김학민 교수의 오페라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통섭형 강의… 강사료 · 운영비 등 지원

지난해 진흥원은 총 60개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선정했다. 지역과 연계된 인문학 주제를 발굴해 전남 보성공공도서관은 '보성의 소리, 서편제의 향기를 찾아서'란 강의로 지역 출신 문학가가 보성의 문화와 판소리를 주제로 소설 창작을 강의하고, 국악 예술인을 초빙해 남도 판소리를 선보였다. 이 밖에 경기 안성 공도도서관의 '문학평론가 정여울과 세계 명작을 찾아 떠나는 유럽 인문기행', 경북 문경 근암서원의 '동양 고전의 바다에 빠지다' 등의 인문학 강의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공모사업 신청은 2월 중에 인문독서아카데미 홈페이지(www.inmunac-kpipa.or.kr)에서 받을 예정이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인문독서아카데미 60개소를 선정하면 각 기관에서는 3~10월에 걸쳐 강좌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진행되는 강좌 정보는 인문독서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강좌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정보를 파악한 뒤 각 시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G

**인문독서아카데미 모집**

| | |
|---|---|
| 공모 주제 | 인문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인문독서아카데미 모집 |
| 신청 자격 | 전국 공공도서관, 문화원, 서원 등 |
| 신청 기간 | 2월 중 |
| 선정 혜택 | 강사료 외에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
| 공모 문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재양성팀 02-3153-2792 |

#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

이혜민 | 위클리 공감 기자

"시각장애인들은 당연히 일반인들보다 눈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음성합성기를 활용하면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어요. 예컨대 시각장애인이 음성합성기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모니터에 마우스를 대면 웹브라우저상에 있는 글자, 수식이 소리로 들립니다."

(주)보이스웨어 박기태 부장은 "시각장애인용 음성합성기 외에 언어·신체장애인용 음성합성기도 개발했다"며 뿌듯해했다. 전신마비 환자도 음성합성기를 활용하면 브라우저상에 '아파요', '배고파요'라는 아이콘(그림단추)을 눌러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회사가 장애인용 음성합성기를 개발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하는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덕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국민편익 증진기술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2010년 시작했다. 지금껏 36건을 진행했고, 매년 10여 곳을 선정해 각각 3억여 원을 평균 2년 동안 지원했다. 보이스웨어는 4년 동안 기술개발비 17억 원을 받았다.

올해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을 선정하기에 앞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국민들의 실수요에 걸맞은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수요조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업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연구기관이 수요조사 때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의사표현이 불편한 이들이 활용하는 음성합성기. 이 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몇 개 누르면 문장이 완성돼 음성으로 전환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매년 10여 곳 선정 3억여 원씩 지원

물론 수요조사로만 신규 지원 과제를 선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요조사를 2015년도 과제 도출을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 담당자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차신영 전임은 "국민의 수요가 많거나 수요처가 확실하면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3월까지 수요조사 접수를 완료하면 4, 5월에 과제 지원 대상 품목을 확정하고 6월 사업공고를 낸 뒤 7, 8월에 신청 과제를 선정한다.

참여자는 수요조사 유형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유형은 사회 약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사회 약자 배려형'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사회 이슈 해결형'으로 나뉜다. 유형을 골랐다면 그다음에는 판로 개척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즉 기술 개발 이후의 판로를 찾았다면 '구매 조건부'에, 판매처를 찾아야 한다면 '판로 개척형'에 지원하면 된다.

수요조사는 '따뜻한 기술' 홈페이지(with365.keit.re.kr) 하단의 '2015년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로 들어가거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itech.keit.re.kr)의 '온라인 사업관리' 메뉴를 통해 3월 13일까지 할 수 있다. G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

| | |
|---|---|
| 공모 주제 |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 공모 |
| 신청 자격 | 국민 누구나 가능 |
| 신청 기간 | 1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
| 선정 혜택 | 기획연구진으로 활동 가능 |
| 공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53-718-8243 |

# 불법 꼼짝 마! 저작권 지킴이 떴다

## 불법 복제 저작물 확산 방지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조영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개최한 '2015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이 1월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열렸다.**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등산이 취미인 이춘삼(가명·78) 씨. 아들이 사준 요즘 유행하는 일명 '효도 라디오'(트로트 수백 곡이 담긴 MP3 플레이어)는 등산 필수품이다. 국가대표 축구경기 '본방(본방송) 사수'를 못 한 아들 이경봉(가명·50) 씨. 몇 시간 후 인터넷으로 뉴스 기사를 보고 개인 블로그에 게재했다. 연예인 팬클럽을 운영하는 손녀 이지은(가명·22) 양. 인터넷에 떠도는 연예인 사진을 모아 매주 홈페이지 화면을 바꾼다. 며칠 뒤, 온 가족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뭐가 문제였을까? 이유를 모른다면 이미 당신도 저작권 무법자일지도 모를 일!(아래 상자기사 참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지식과 인식은 어느 수준일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발표한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국내에서 유통된 불법 복제물은 약 24억700만 개, 시장 규모는 약 3728억 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4조4000억 원의 생산 감소, 4조 명의 일자리 감소에 상응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국가발전은 저작권 보호가 뒷받침될 때라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 저작권 보호해야 창조경제 문화 융성

저작권 침해 사례를 단속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420명의 저작권 지킴이가 나섰다. 지난 1월 23일 서울산업진흥원에서 '2015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이 열렸다.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구성된 저작권 지킴이는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 저작물 유통을 감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 저작권계 인사들은 불법 복제 저작물 유통을 근절해 건전한 저

### 이춘삼 씨 가족은 왜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Q 효도 라디오는 불법인가?**

**A** "효도 라디오는 휴대용 스피커 라디오에 음원을 담은 SD카드를 장착하여 실행되는데 이 카드는 대부분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복제물이다. 정품 SD카드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인증마크가 붙어 있다."

**Q 신문 기사를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허용될까?**

**A**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Q 인터넷에 연예인 사진을 올리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A**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사진작가가 직접 초상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기타 저작권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www.kofoc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작권 생태계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저작권 보호는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는 콘텐츠산업의 필수 요소다.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저작물 보호망을 촘촘히 하여 저작권 지킴이가 저작산업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해 저작권 지킴이는 약 8900만 점의 불법 복제 저작물을 적발해 약 27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저작권 지킴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발대식에서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어르신 대표가 소감을 발표했다.

## 장애인 300명 온라인서 근무

*# 실버요원 강철수 씨는 젊은 시절 무역회사 임원으로 일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 때 일자리를 잃고 오랜 시간 방황했다. 늦은 나이에 일자리를 얻게 된 데 감사를 전하며 "저작권도 무역의 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문화 콘텐츠라는 무형의 무역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재택근무 지킴이 박경숙 씨는 미국 무역회사 해외영업부에서 근무하다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 실정도 잘 모르고 주부로 지낸 시간이 길어지며 경력이 멈췄는데, 여성개발원을 통해 저작권 지킴이를 알게 됐다. 박 씨는 "저작권 재택근무 지킴이로서 사회에 진출하는 동시에 가사도 방해받지 않아 좋다. 아이들에게 지킴이 활동 모습을 보여주는 건 타인 권리 존중 교육의 효과도 있다"며 좋아했다. 이어 장애인 대표 문병현 씨도 "학교조차 다니기 어려웠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기억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살겠다"며 저작권 지킴이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 기쁨을 전했다.*

한편 저작권 지킴이는 장애인 300명과 경력단절여성 100명이 온라인에서 불법 복제 저작물 유통을 감시하는 '재택근무 지킴이'와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이 실제로 불법 복제 저작물 유통 현장을 찾아다니는 '어르신 지킴이'로 나뉘어 활동한다. 이들은 불법 복제 저작물을 발견하면 저작권보호센터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G

**재택근무 지킴이 장애인 대표 문병현 씨**

## "성취와 자신감… 문화강국 밑거름 뿌듯"

**어떻게 저작권 지킴이로 선정되었나요?**

"몸이 약하다 보니 집 안에서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 많아 컴퓨터를 잘 다룹니다. 또 저 역시 불법인 줄 모르고 토렌트 사이트를 자주 이용한 경험이 있어 누리꾼들이 저작권에 대해 어떤 부분을 모르고 위반하는지 잘 압니다. 이런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적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면접에서는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으로서 자신감과 포부를 보여드려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조영철 기자

재택근무 지킴이 장애인 대표 문병현 씨가 앞으로의 활동에 관해 포부를 이야기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저작권 지킴이는 분야와 시간을 나누어 24시간 동안 활동합니다. 저는 음악 분야를 맡아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활동합니다. 토렌트 등 음악 공유 P2P(인터넷으로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사이트, 블로그 등 지정된 사이트에서 저작권 위반 사례를 찾아 캡처한 후 저작권보호센터에 보냅니다."

**네티즌이 무심코 하게 되는 저작권 위반 사례가 있다면요?**

"P2P 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저작권법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면책하지만 '전송'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노래 가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수가 아닌 저작자(작곡가 혹은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1년간 활동을 앞둔 포부는 어떠신가요?**

"저작권 지킴이로 선발되어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더욱이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어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교육을 받으며 저작권 보호가 문화강국 실현의 밑거름이라 배웠습니다. 저의 희망찬 기운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국가경제와 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 어린이집 아동학대 뿌리 뽑는다



동아DB

글로벌 화장품 회사 시세이도의 사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율동시간을 보내고 있다.

박길명 | 위클리 공감 기자

앞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려면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또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인가를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신고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부모 참여 활성화, 원장·교사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 근로 여건 개선, 공공성 높은 보육 인프라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등이 추진된다.

우선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에 국가시험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인성을 검증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육교사가 되려면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 아동학대 근절 체벌 강화·신고 활성화

국가시험 도입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또 현행 3단계 자격을 2단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학과에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서는 대면 교육 및 현장실습을 대폭 강화하고 2급

교사의 1급 승급 시 교육도 확대된다. 원장이 되기 위한 필요 경력기간을 늘리고 사전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등 자격 취득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육교사 채용 단계에서 인성검사는 물론, 기존 경력자의 직무교육 이수 여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등 검증이 의무화된다. 보수교육에 아동 행동지도, 인성 등 보육현장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대폭 추가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만 인가하고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부모의 CCTV 열람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열람 주체, 시기, 방법, 열람 거부 시 처벌 규정, 개인정보 보호 등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사의 인권 침해 등 우려사항은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들어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CCTV 설치 유형 및 수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관련 항목을 정보 공시 필수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평가인증제를 의무평가제로 전환하고 공급자와 서류 중심 평가에서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인 부모 중심 평가로 개편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부모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급화해 인터넷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와 함께 급식, 시설, 차량 등 부모 안심 분야에 대해선 '부모 안심인증제'를 도입한다.

부모 모니터링단 강화, 부모에게 열린 '개방 선도 어린이집' 지정 확대 등으로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부모가 집에서도 자녀의 학대 피해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보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부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심리치료를 비롯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이름과 어린이집을 공개하고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및 과태료 상향**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1000만 원(현행) ➔ 2000만 원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500만 원(현행) ➔ 1000만 원

**보육인프라 확충 (2015년)**

공공 어린이집 200곳 국공립어린이집 150곳(2017년까지 450곳)
*누리과정(3~5세) 3, 4개 반당 보조교사 1인 배치

## 보조교사 배치 근로환경 개선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동시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의무 불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 보육의 질이 낮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유치원처럼 보조교사를 배치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누리과정(3~5세)의 경우 3, 4개 반당 보조교사 1인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보육교사가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서류업무 등을 최소화하고 보육교사 상담 전담요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해 멘토링도 제공할 방침이다. 보육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곳을 확충하고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올해 150곳,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등 기존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

# 당황하지 않고~ 범죄 112 · 재난 119 · 민원 110!

## 국민안전처 20개 긴급 신고전화 내년 통합키로

박길명 | 위클리 공감 기자

초등학생 남매를 둔 유 모(45·서울 강서구) 씨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학교폭력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심란하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듯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가끔 아이들과 연락이 안 될 때면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일쑤다. 게다가 아이들은 물론 자신도 잘 모르는 긴급전화가 자주 걸려와 불편하다는 게 유 씨의 지적이다. "112나 119는 주입시킨 덕에 아이들이 잘 알지만 그 밖엔 몰라요. 저도 '122'라는 해양사고 번호가 있는지 최근에야 알았으니까요."

유 씨처럼 각종 범죄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학부모의 고민 덜어주기에 나섰다. 정작 급할 때 잘 생각나지 않는 신고번호를 통합한 것.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종에 달하는 긴급 신고전화는 '112'와 '119'로 통합되고, 긴급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각종 민원과 상담전화 등은 '110'으로 단일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신고전화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해 1월 27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모든 신고전화는 긴급 신고와 비긴급 신고로 구분되어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긴급한 범죄 신고는 112로, 긴급한 재난이나 구조 신고는 119로 통합 운영된다. 또 긴급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각종 민원이나 상담전화는 110로 단일화해 필요한 기관에 자동 연결되도록 개편된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1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12, 119, 110 3개로 통합되는 긴급 신고전화 통합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현재 신고전화가 112, 119뿐만 아니라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20개가 넘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국민안전처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약 80%의 국민이 신고전화의 수가 너무 많고, 90%는 신고전화 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 국민 대다수 신고전화 통합에 공감

국민 대다수가 신고전화의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 신고전화가 통합되면 범죄 분야 긴급 신고전화는 112로 한데 묶인다. 대상 번호는 범죄 112, 미아 182, 범죄·검찰 1301, 불량식품 1399, 학교폭력 117, 여성폭력 1366, 청소년 상담 1388, 노인학대 1577-1389, 자살·정신건강 1577-0199, 군 위기·범죄 1303, 밀수·관세 125, 사이버 테러 118 등이다.

이와 함께 재난·구조·구급 119, 해양사건·사고 122, 재난 1588-3650, 환경오염 128, 가스 1544-4500, 전기 123·1588-7500, 수도 121 등 재난 분야 긴급상황은 모두 119 하나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112와 119를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서는 112나 119 구분 없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내용은 새롭게 도입되는 112,

119 연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돼 반복 신고 없이 소관기관으로 즉시 전달된다. 또 긴급한 대응을 요하지 않는 각종 행정, 요금, 범칙금, 생활민원 등 일반 민원과 청소년, 여성, 노인, 정신건강 등 전문상담은 정부 대표 민원전화인 110으로 단일화된다.

개별 민원·상담번호를 아는 국민은 종전 번호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일단 긴급 신고전화 통합에 대한 국민 반응은 아주 좋다. 일하는 엄마 박민숙(38·여·부산 남구) 씨는 "번호가 통합돼 아이들이 쉽게 외울 수 있어 엄마 입장에서 교육하기도 좋다"며 "신고전화 통합 제도가 빨리 시행됐으면 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자료 : 국민안전처

## 철저한 현장조사 차질 없이 통합 추진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 강진모 사무관은 "긴급 신고전화 통합은 세계적인 추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신고전화를 통합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노르웨이, 이스라엘, 멕시코, 칠레 6개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911'에서 모든 긴급 신고를 처리하며 민원, 상담전화는 '311'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영국 역시 긴급 신고전화는 '999', 민원·상담전화는 '101'로 단일화해 운영 중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범죄·재난 긴급전화를 119 단일번호로 통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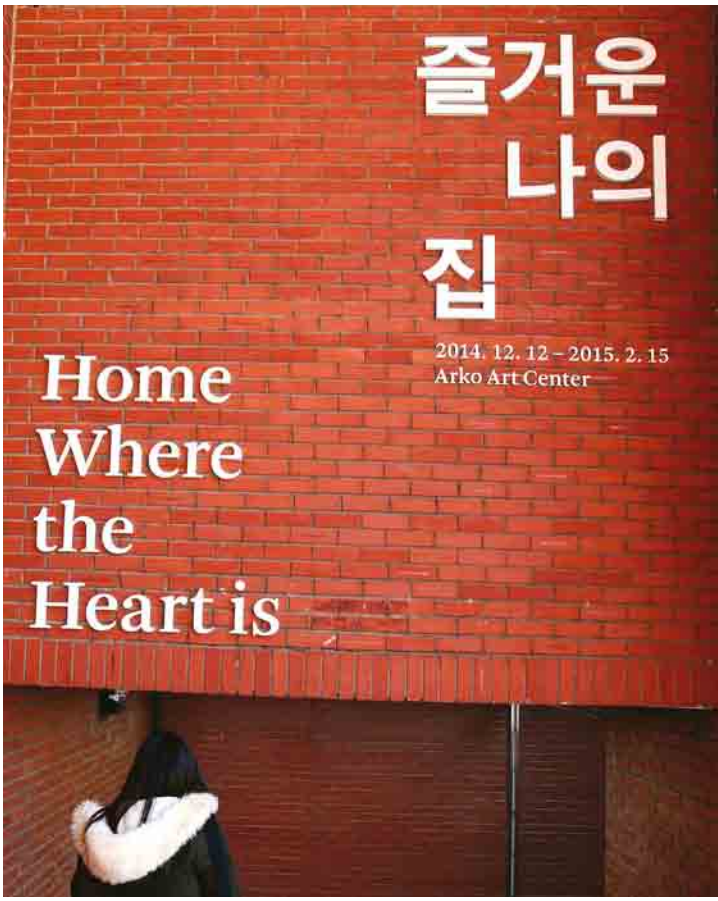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 112, 119 번호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국민안전처는 이와 관련해 112와 119 모두 인지도가 99%로 오랜 기간 국민에게 익숙해 둘 중 하나의 번호를 없앨 경우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을 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화량 폭주현상이 우려되는 반면 112, 119 복수 신고전화를 운영하면 상호 보완성 확보로 긴급신고 처리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번 신고전화 통합으로 긴급 신고체계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안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철저한 현장조사와 준비로 통합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올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통합작업을 추진해 내년부터 새로운 신고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G

# 저녁 때 돌아가 당신이 쉴 집이란?

## 서울 아르코미술관 〈즐거운 나의 집〉 展



김형우 기자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다녀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며 내뱉는 이 한마디는 집이 지닌 의미를 함축한다. 집은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내 몸이 있어야 할 자리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집으로 돌아오기 위한 여행 아닐까. 외부로부터 벽을 둘러쳐 나를 감싸는 집은 오롯이 내가 나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우리 삶에는 유년 시절을 보낸 기억의 집, 현재 살고 있는 집, 살아보고 싶은 꿈속의 집이 있다. 이 세 가지 집이 겹친 곳에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작고한 건축가 정기용의 말은 자산으로서의 집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내 집은 어떠한지, 내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한다. 이를 통해 살고 싶은 이상적인 집을 어떻게 현실의 즐거운 나의 집으로 실현할 것인지 해답을 찾아가는 '집 구경'이 시작된다.

### 살았던 집,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살아보고 싶은 집

현관문을 열면 하얀 불빛을 내뿜으며 텔레비전이 나를 응시한다. "난 이미 두 달 전부터 먼지가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은 거실을 채우는 장식물들의 시선이다. 유선 전화기, 녹슨 트로피, 트랜지스터 등 오래된 사물이 말한다. 사물은 전시되는 대신 스스로 이야기를 건네며 추억을 소환한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는 '우리 집'의 반주이고, 꼭대기 다락방은 부모에게 야단맞은 아이를 조용히 위로한다. 집 안의 가장 작은 방은 내 방에서 내 아이의 방으로, 사랑방에서 다시 창고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제 모습을 달리한다. 김서령 '오래된 이야기 연구소' 대표는 집은 가장 소중한 것들의 집합소라고 말한다.

"우리 집에는 아들의 첫돌 무렵 사진이 있고, 스무 살의 내 사진이 있고, 50년 전 영화 속 잉그리드 버그먼의 사진도 나란히 놓였다. 이야기를 간직한 물건이 있는 집은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한다."

추억을 뒤로하고 부모의 집, 혹은 우리 집을 떠나 '내 집'을 갖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된다. 82만5000~700만 원 사이. 월 소득에 따라 내가 열 수 있는 방문이 달라진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면 현재 월급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자산의 교차점이 내가 서 있을 위치를 말해준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단독·다가구 주택부터 서초구 반포동의 전세 10억 원짜리 아파트 사이의 어디쯤. 내가 서 있는 지점의 좌표가 내 집을 결정한다.

도시와 교통 인프라, 부동산 조사 연구 그룹으로 이루어진 창작 집단 옵티컬레이스의 '확률가족'은 소득 수준과 대물림에 의해 집이 결정되는 현실을 통해 자본과 사회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확률가족'의 시선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향한다. 옵티컬레이스는 "현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접한 후 어떠한 형태의 대안적인 집을 추구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게 '확률가족'의 의도"라고 설명한다. 인테리어를 전공하는 대학생 유태균 씨는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작다 보니 오히려 집을 활용하고 가꾸는 법에 대해 더 고민할 수 있게 됐다"며 작품을 본 소감을 밝혔다.

사람들이 꿈꾸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 "살고 싶은 집을 말할 때 집의 크기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넓은 부엌이나

**1** 건축가그룹 SOA의 '사물이 이 집을 말하다'. 거실을 채우는 집주인의 욕망이 담긴 사물들이 추억을 이야기한다.
**2** '새동네' 프로젝트로 탄생한 공동임대주택 '가좌관 330'은 소유보다 더불어 사는 집의 의미에 집중한다.
**3** 옵티컬레이스의 '확률가족'은 소득, 대출 가능액, 증여액을 통해 살 수 있는 집을 그래픽을 통해 보여준다.

김형우 기자





(주)글린트

김형우 기자




긴 복도, 아늑한 조명 등 옛집의 기억과 현재 생활에 따라 이상적인 집의 모습을 그린다." 차승주 큐레이터는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관람객의 반응을 이같이 전했다.

## 각자가 말하는 집
## 풍부한 이야기

제3전시실은 제2전시실에서 경험한 현실적인 집의 대안적 형태를 보여준다. 서울을 벗어나 조금만 도심 밖으로 나가면 생각보다 큰돈을 들이지 않고 가족에 맞는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영상을 통해 만난 그들의 모습은 집이 아닌 삶을 짓는 듯하다.

소유보다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면 공동주택은 어떨까. 이번 전시의 협력기획사 (주)글린트의 '새동네' 프로젝트는 소규모 필지를 중심으로 주택을 설계하고 개조해 제공하는 주택임대 서비스다. 서울 남가좌동에 위치한 '가좌 330'과 '가좌관 330'은 '새동네'의 꿈을 실현했다. 가좌 330을 채우는 여섯 가구는 3층에 둘러앉아 부침개를 나눠 먹고, 가좌관 330의 네 가구는 채광을 위해 지붕을 갈라 만든 사이에 자리한 발코니에서 이야기 꽃을 피운다. 1m² 당 1만 원, 2년 단위로 10%씩 적립되는 월세 혜택은 덤이다. 이재준 (주)글린트 소장은 "새동네 프로젝트는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집을 짓기 위해 시작했다"며 "살고 싶은 집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집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전시장을 메운 50여 편의 문학 속 상상의 집은 살고 싶은 집을 떠올리게 하고, 건축가와 건축주의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 집의 평면도를 보면서 나에게 알맞은 집을 고민한다. 전시장을 나서는 관람객은 이제 '집을 사는' 꿈 대신 '집에 사는' 꿈을 꾼다. G

### 전시·강연 정보

아르코미술관과 전시기획사 (주)글린트의 협력기획전으로 열리는 〈즐거운 나의 집〉은 시각예술가, 건축가, 만화가 등 28개 팀이 참여하여 집이 지닌 다양한 가치를 설치, 영상, 회화 등으로 재구성했다.

| | |
|---|---|
|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
| **전시일** | 2015년 2월 15일까지 (매주 월요일 휴관) |
| **관람시간** | 오전 11시~오후 7시 |
| **전시 장소** | 서울 종로구 동숭길 3 아르코미술관 |
| **문의** | 02-760-4608(4618) |
| **강연** | '내가 살고 싶은 집' |
| **강사** | 김서령 '오래된 이야기 연구소' 대표 |
| **일시** | 2월 7일(토) 오후 2시 |
| **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 날마다 성큼성큼 봄이 오는 속도



뉴시스

경남 통영시 정량동 이순신공원에서 꽃망울을 터뜨린 동백꽃.

김창엽 | 자유기고가

"뭔가 봄기운이 느껴지지 않니?"

"맞아, 햇살이 왠지 봄 느낌이 나."

1월 하순 정부 대전청사 인근에서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두 여성의 대화에 '훈풍'이 살랑거린다. 1월 하순이면 절기상으로는 겨울의 한복판이다. 한데 봄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두 여성의 계절 체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개인차가 있겠지만, '계절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겨울이랄 수 있는 1월 하순에도 지평선 너머로 어른거리는 봄빛을 어렴풋이나마 감지해낼 수 있다.

그렇다면 1월 하순에 느껴지는 '봄빛'의 실체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하늘로 제법 높이 떠오른 태양이 봄빛을 느끼게 했을 가능성이 십중팔구다. 한 예로 1월 27일 정오의 대전 지역 태양 고도는 35도 정도였다. 약 한 달 전인 12월 동지 때의 30도에 비해 5도가량 해가 높이 솟은 것이다.

5도 정도면 대다수 사람들이 변화를 감지할 만한 각도다. 대전 등 중부지방에서 태양의 고도는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 때 한 달 평균 8도가량 높아진다. 한겨울과 한여름에는 고도의 변화가 적은 편이다. 한 달에 대략 5도가량 변한다. 반면 춘분, 즉 3월 하순 전후의 시기에는 한 달에 10도 이상 고도가 치솟는다. 추분, 즉 9월 하순 전후에도 마찬가지로 고도의 변화가 크다.

계절별로 다채로운 빛에 대한 묘사는 시나 소설에서 종종 접할 수 있다. '힘없는' 겨울빛이라든지, 생동감과 활력의 상징이 되곤 하는 봄빛 같은 게 그 예다. 빛에 대한 작가들의 여러 표현은 문학적 감수성의 발로겠지만, 실은 상당 부분이 과학적 사실과 맞닿아 있다.

예를 들면 이론상 12월 하순 구름 없는 날, 서울 지역 1㎡의 대지에 내리쬐는 햇빛의 에너지는 500W로 6월 하지 때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반면 3월 중순에는 햇빛 에너지 수준이 800W까지 올라간다. 이는 바깥 온도가 5℃로 똑같을지라도 남쪽을 향해 차를 주차해놓았을 때 1월 초순에 비해 3월 초순의 차 안이 훨씬 따뜻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겨울빛은 봄빛보다 힘(에너지)이 떨어지는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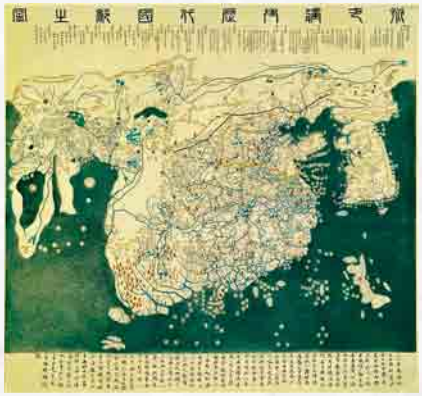
계절에 따른 빛의 변화를 느끼는 건 주관 혹은 체질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점 하나는 계절 빛의 변화 속도는 매번 일정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빛을 기준으로 한다면, 봄이 오는 속도를 얼마든지 계산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제주의 봄빛은 서울보다 2주가량 빠르게 찾아온다. 제주는 위도가 서울보다 4도가량 낮은데, 이런 까닭에 태양의 고도는 같은 날이라면 거의 그만큼 높다. 구체적인 예로 정오 햇빛의 입사각이 40도에 이르는 날이 제주에서는 2월 4일 무렵인데, 서울에서는 설 연휴 직전인 2월 16일은 되어야 한다.

체감 기온이 서울이나 제주가 똑같은 2월의 어느 날, 서울 사람이 제주를 방문하면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다. 제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산이나 목포, 여수, 통영과 같은 남쪽 도시들은 서울과 위도 차이가 2도 이상 나는 까닭에 적어도 일주일 이상 봄빛을 빨리 느낄 수 있는 곳들이다. 지구의 공전 특성상 춘분이 가까워질수록 해는 매일 성큼성큼 큰 폭으로 고도를 높여가게 돼 있다. 꽃샘추위나 이상 한파의 심술은 있겠지만, 봄은 한번 오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G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 “천하는 넓다네” ‘혼일강리도’의 시선



뉴시스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 歷代國都之圖·일명 혼일강리도)’는 1402년(태종 2년)에 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도다. 채색 필사본이며 가로 164㎝, 세로 148㎝의 대형 지도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구대륙 지도이며 신대륙 발견 이전의 지도인 만큼 신대륙에 대한 정보는 없다.

1402년의 원본은 현재 남아 있지 않고, 원본을 바탕으로 만든 지도가 일본 류코쿠대(龍谷大) 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1402년 8월 태종의 왕명으로 지도 제작에 참여한 사람은 김사형, 이무, 이회, 권근 등이었다. 참찬(參贊) 권근은 지도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제작 동기를 밝힌 발문을 썼는데, 이것이 권근의 문집 〈양촌집〉에 기록돼 있다.

“천하는 지극히 넓다. 내중국(內中國)에서 외사해(外四海)에 이르기까지 몇 천만 리인지를 알 수 없다. …지금 특히 우리 지도를 증광(增廣)하고 일본을 첨부하여 새로운 지도를 작성하였다. 정연하고 보기에 좋아 집을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지도를 보고 지역의 원근을 아는 것은 다스림의 일조가 된다. …나는 재주가 없으나 참찬을 맡아 이공(二公 : 김사형과 이무)의 뒤를 따랐는데 이 지도의 완성을 기쁘게 바라보게 되었다.”

권근의 발문을 보면 김사형과 이무가 지도 제작을 기획하고, 실무 작업은 이회가 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작에 참고가 된 원나라 세계지도는 이슬람 계통 지도인 ‘성교광피도(聲敎廣被圖)’의 영향을 받았다. 아랍어 지명이 보이고 바다는 녹색, 하천은 청색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것은 이슬람 계통의 지구의(地球儀)와 동일하다. 세계제국을 형성했던 원나라 시대에 이 지도가 중국으로 들어왔고, 이것이 ‘혼일강리도’ 제작에 영향을 줬다.

그러나 이슬람 계통에서는 원형의 세계지도를 제작한 것과 달리 ‘혼일강리도’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천지관(天地觀)에 토대를 뒀다. 지도가 사각형으로 그려진 것은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명나라에서도 1398년경 ‘대명혼일도(大明混一圖)’가 제작됐는데, ‘혼일강리도’와 유사한 모습을 띤다. 결국 이슬람 계통의 지도에 영향을 받은 중국의 세계지도를 참조하고, 여기에 조선과 일본 지도를 합해 ‘혼일강리도’가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권근의 발문에 “우리 지도를 증광하고 일본을 첨부했다”는 표현이 이를 입증한다.

‘혼일강리도’엔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라비아반도, 아프리카, 유럽까지 표시돼 있다. 100여 개의 유럽 지명과 35개의 아프리카 지명이 나오며, 지중해가 바다 아닌 호수로 표시되거나, 아프리카 중심부가 대부분 호수로 채워진 게 흥미롭다.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에 ‘황사(黃砂)’라 하여 사하라 사막에 대한 정보도 나타난다. 필리핀과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까지 선명히 표시돼 있다. 610여 년 전에 작성된 세계지도 ‘혼일강리도’를 통해 넓은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식한 조선 초기 선조들의 모습을 접할 수 있다. G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 법원 사건기록 표지 원고는 紅, 피고는 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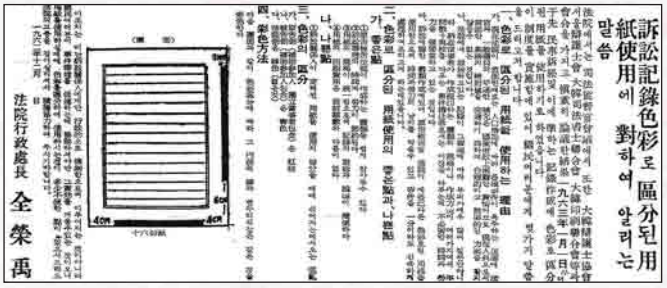
김병희 |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 전 한국PR학회장

최근 들어 소송에 사용되는 양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이 2014년 9월부터 이혼소송 소장(訴狀) 양식을 개선한 사례를 보자. 그동안 이혼소송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잘못을 많이 적는 게 소송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 상대방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글의 분량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기존의 서술형 질문이 "다음 중 이혼 사유를 고르시오"라고 물어보는 객관식 질문으로 바뀐 것. 혼외 성관계, 알코올 중독, 장기간 별거, 폭행 같은 37가지의 파탄 사유 중에서 3, 4개를 고르게 하는 '선택형 객관식'이다. 이는 이혼 당사자 간의 2차 상처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획기적 발상이다. 이처럼 법원의 소송 양식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돼왔다.

법원 행정처의 광고 '색채 용지' 편(경향신문 1962년 12월 22일)을 보자. "소송기록 색채로 구분된 용지 사용에 대하여 알리는 말씀"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1963년 1월 1일부터 민사소송 및 이에 준하는 기록 작성에 색지(色紙)를 사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 다음 장단점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색채의 구별 방법을 간단명료하게 나열했으며, 마지막으로 채색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서류 작성에 있어 원고 피고 및 법원이 제각기 다른 색채로 된 용지를 사용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그 사건을 1분이라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고자" 색지 사용으로 바꾼다고 했다. 원고와 피고 및 법원이 서류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소송 심리의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며, 용지 규격의 통일로 간편하고, 용지의 비용은 종전과 다름이 없다며 색지 사용의 4가지 장점을 강조했다. 단점은 소송 관계인이 정해진 용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혼란을 초래한다는 한 가지만 들었다. 억지로 단점 하나를 만들어낸 듯한 느낌이다.


訴訟記錄色彩로區分된用紙使用에對하여 알리는 말씀

法院行政處長 全榮禹

소송 서류의 변천사를 엿볼 수 있는 1962년 법원 행정처 신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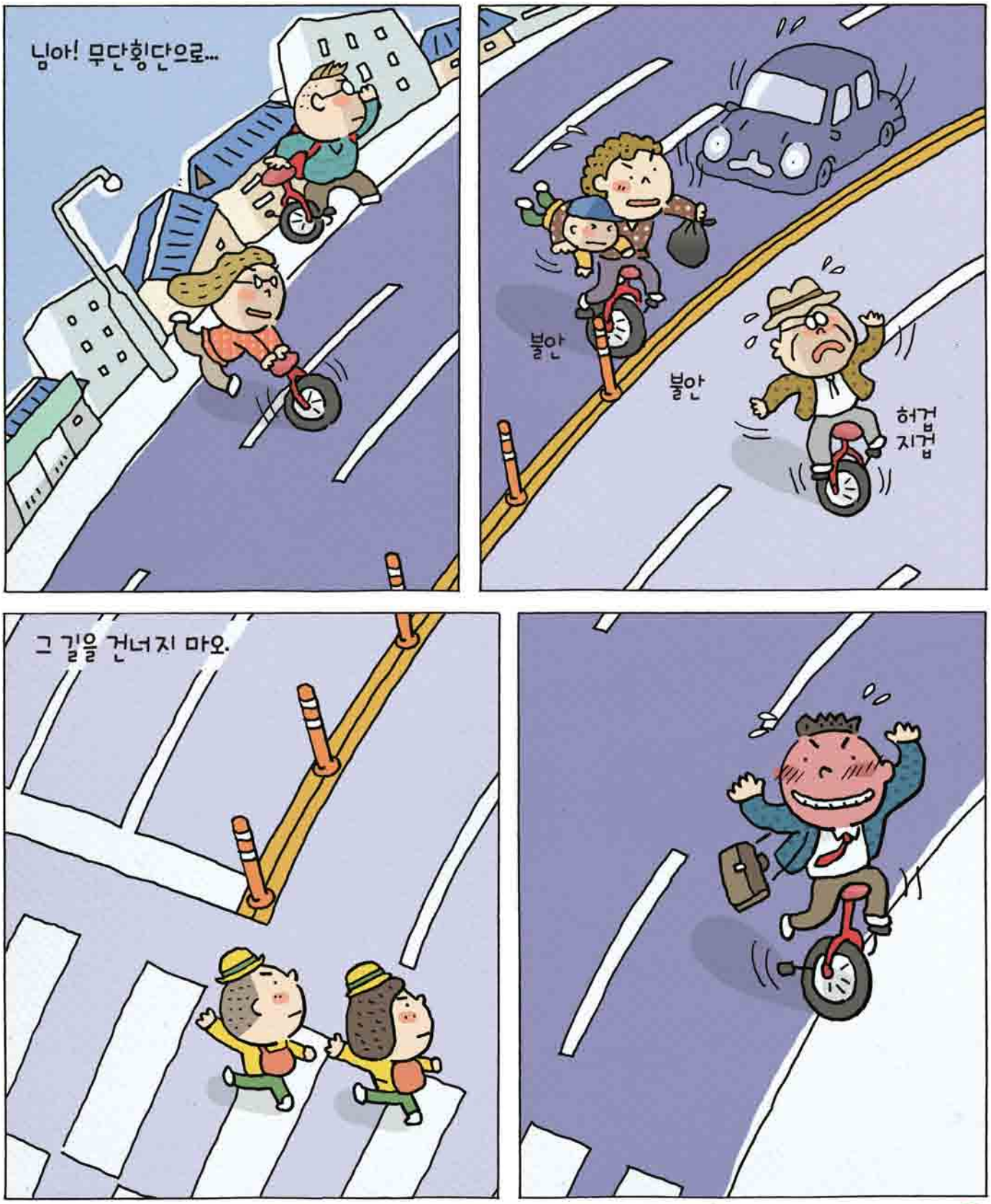
그리고 원고는 홍색(紅色), 피고는 청색(靑色), 법원은 엷은 녹색(綠色)으로 표지 색채를 구분했다. 사건기록의 표지는 소송의 기본 사항을 집약시킨 사건의 얼굴과 같다. 표지에 사건 접수 일자, 사건의 종류, 사건 번호, 사건명이 나타나 있으니 표지에 사건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셈이다. 그동안 사건기록의 표지도 숱한 변화를 거듭했다. 사건기록의 표지는 '법원 공문서 규칙'에 따라 1961년에 처음 등장했다. 광고에서 알 수 있듯이 1963년부터는 '민사·행정소송 사건기록 색채용지 사용 요령'에 따라 용지의 하단과 오른쪽 중앙에 채색을 했다.

서류를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철끈으로 묶으면 분량 때문에 삐뚤빼뚤해지기 마련이었다. 대법원은 1964년 3월 각급 법원에 사건기록을 상급심으로 송부하기 전에 반듯이 정렬해서 보내라는 통첩을 보냄으로써 속칭 '각 잡기'가 유행해 펀치가 보급되기 전까지 계속됐다. 1979년부터는 두꺼운 사건기록의 마멸을 막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비닐 표지를 썼으며, 1993년부터는 많은 기록을 보자기에 싸서 법정으로 옮기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네 바퀴 달린 큰 수레가 등장했다.

이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양식 모음'을 클릭하면 소송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실로 흥미로운 사건기록의 변천사를 돌아보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더 변할 것인가. 이런저런 소송에 필요한 법원 양식이 지금도 100여 가지나 된다고 한다. 이참에 유사한 양식을 통합하고 단순화해 그 가짓수를 대폭 줄이면 어떨까 싶다. 법률 문외한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원을 향해 그런 기대를 해본다. G

# 무단횡단 곡예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급할수록 무단횡단은 더욱더 안 됩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 오래된 사진, 오래된 기억

백두산 천지를 보고 싶을 때면 최계복 선생(1909~2002)의 사진을 보곤 한다. 선생의 탄생 100주년 기념사진집을 통해 우리나라의 1930, 40년대 모습을 흑백사진으로 보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사진들 중에서 특히 '영봉과 천지'에 눈길이 많이 간다. 이 사진은 파노라마로 펼쳐진 것이 아니라, 영봉과 천지의 한 장면을 담았다.

사진 속 영봉 위에는 서너 사람이 개미처럼 보이는데, 이들이 있어서 백두산 천지의 스케일을 금방 느낄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의 모습이랄까? 거기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천지의 장관이 눈에 보이는 풍경의 한계를 넘어 상상력을 준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 절벽과 같은 영봉에서 천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1942년 사람들. 선생의 등정 기록에 의하면 일본인 탐사 팀에 어렵게 합류해 갖은 고생을 한 끝에 촬영한 작품이다. 나는 이 사진에 남아 있는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오래된 기억은 사라졌지만,*
*오래된 사진은 남아 있다.*
*사진 속의 일들을*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시절 사진을 보면서*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우리 집 거실에는 작고한 아버지와 장인어른 흑백사진이 걸려 있다. 동시에 서너 살이 된 나의 손을 잡고 종로통을 걸어가는 젊은 어머니와 아버지, 역시 서너 살의 아내와 처갓집 식구들을 찍은 사진도 걸려 있다. 이 사진들은 웃는 표정, 걸음걸이, 자세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때론 아버지가 말을 거는 것 같기도 하다. 그 시절 아버지 모습은 장년인 지금의 내 모습과 흡사하다. 할머니가 된 어머니가 날씬한 투피스 정장 차림에 핸드백을 들고 웃는 모습이 아름답다. 고추를 내놓고 있는 동생과 내가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헛웃음이 나온다. 오래된 기억은 사라졌지만, 오래된 사진은 남아 있다. 사진 속의 일들을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시절 사진을 보면서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최근에 독일 출장을 다녀온 친구에게서 사진 한 장을 선물받았다. 취재차 만난 독일인이 북한을 여행하면서 찍은 개성의 어느 마을 사진이다. 오래된 기와지붕은 허름하지만 군데군데 나무와 전봇대가 있다. 대문과 담장이 보이고, 좁은 골목길이 집 사이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곤 한다. 친구는 말했다. 우리나라 1970년대 동네 풍경 같다고…, 네 아버지 생각이 나서 너에게 주려고 가져온 거라고 했다.

사진을 보니 그 시절에 내가 살았던 이문동이나 신설동의 동네 풍경이 떠올랐다. 친구 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동향이다. 두 분 다 젊은 시절에 개성에서 월남해 타향살이를 하다가 얼마 전 작고하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후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공교롭게도 두 분은 1929년생으로 나이도 같았다. 어쩌면 두 분이 고향에서 아는 사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두 분은 나란히 6·25 전쟁에 참전해 몸을 다친 국가유공자로 영혼을 국립현충원에 모신 것도 닮았다.

독일인이 찍은 사진 속에는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사람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 백두산 천지 영봉에도 사람이 있는데 개성의 한 마을은 대낮인데도 텅 비어 있었다. 사람이 움직인 흔적이 없었다. 아…, 이 사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진 한 장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은 얼마나 오래된 마을인가? 비록 환하고 밝은 동네 모습이지만 사진 속에서 아버지 그림자를 찾지 못했다. G

**원재훈**
시인. 1988년 〈세계의 문학〉 겨울호에 시 '공룡 시대' 외 여러 편으로 등단. 시집 〈딸기〉, 소설 〈망치〉 등 발표.

"열정과 냉철!
나는 국민기자다"



주부 기자단

시니어 기자단

캠퍼스 기자단

글로벌 기자단

세대와 지역을 초월한 국민참여 프로젝트!

KTV 국민리포트

# 2015 국민기자단 모집

2014년 KTV 국민리포트 1,430개 방송

**모집 대상 및 선발 인원**

캠퍼스기자(대학(원) 재학 · 휴학생 00명)
글로벌기자(해외 교포, 국내 거주 외국인 00명)
시니어기자(55세 이상 00명)
주부기자(55세 이하 주부 00명)

**지원 자격**

분야별 1인 지원 가능
1인 제작 가능자 우대
2인(기자 · 카메라) 1팀 지원 우대

**모집 일정**

원서접수(2.2~13) → 서류 전형발표(2.16) →
면접(2.23~24) → 합격자발표(2.25) → 발대식(2.27)
※ 서울 포함 권역별 면접 장소(개별 통보)

**국민기자단 활동 내용 및 지원**

KTV 뉴스 통해 리포트 방송
취재활동비 건당 20만원 지급
우수국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명 수여
캠퍼스 기자단의 경우 인턴십 수료증 수여

**모집 분야** 기자, PD, 카메라, 작가, 아나운서

**문의**

KTV 정책콘텐츠부 김현근(044-204-8151)

※ 자세한 내용은 K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TV 국민방송